

대전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제고 방안

2008.12

정선기

대전발전연구원

머리말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앞을 다투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삶의 질’ 관련 정책이 그 개념적 복잡성 및 그에 따른 관점의 차이로 인해 주민의 정책적 동의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삶의 질’이라는 이름아래 연구·추진되는 많은 시책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기대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책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제 사회구조와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 일상적 가치와 생활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삶의 질’ 개념은 ‘오감’과 관련된 복합적인 주관적·객관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활양식의 맥락 속에서만 적절하게 연구·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활양식 개념에 기초해서 의욕적으로 ‘삶의 질’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 연구가 시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선 요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육동일

목 차

1. 연구의 목적	4
1) 연구의 필요성	4
3) 연구의 목적	6
2. 이론적 배경	7
1) 선행연구검토	7
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16
3. 대전시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	21
1) 생활양식의 특성	21
2) 삶의 질 변화	34
3) 생활양식의 정책적 함의	45
4. 정책 제언	56
1) 일상생활을 위한 정책	56
2) 분야별 정책 전략	60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배경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삶의 질’ 관련 정책은 항상 그 개념적 복합성 및 그에 따른 관점의 차이로 인해 주민의 정책적 동의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질 관련 정책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삶의 질’ 제고라는 이름아래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행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이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출발하고 있지만 정작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책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종래의 정책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식은 주로 주민의 의식이나 욕구를 조사해서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접근은 행위자의 ‘의식’(주관적)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을 뿐 그 ‘무의식’(객관적) 측면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를 갖게 된다.

사회구조와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가치와 생활방식도 크게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연구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삶의 질’ 개념은 ‘오감’과 관련된 다양한 주관적·객관적 요소를 포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만 적절하게 연구·분석될 수가 있다.

최근 사람들의 물적인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에 따라 건강, 여가, 문화 향유 등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소위 ‘의(衣)식(食)주(住)’ 문

제도 이제 단순히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거주하는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 필요성

전통적으로 삶의 질 지표는 도시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수단이자 동시에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삶의 질’을 장소 프로모션(promotion)과 도시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경쟁함에 따라 ‘삶의 질’(QOL) 연구는 도시를 활기차고, 지속가능하게 계획·관리하는데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삶의 질 연구는 정책결정자가 도시의 계획·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 ‘장소의 가치 제고’, ‘도시 계획·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삶의 질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영향’, ‘문제 영역’, ‘불만족의 원인’, ‘시민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삶의 질 연구의 성과를 단순히 ‘자본의 유인’, ‘장소 프로모션’ 등과 같은 도시 마케팅 영역에 제한하여 활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다. 왜냐하면 삶의 질 연구는 ‘시민’, ‘단체’, ‘정책결정자’ 등에게 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Bottom-Up 방식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 추진된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단순히 자본을 유인하는 수단(장소)의 관점에서 일반화하여 바라보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집단적 제약성을 간과하게 된다. 삶의 질은 객관적 생활 여건만이 아니라 주관적 행복감도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사회·문화적 의미(제약)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삶의 질 개념은 항상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포괄하기 때문에 항상 지표의 일반화에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인 제약성을 고려

하면서 삶의 질의 개인적(의식)·집단적(무의식)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양식’(lifestyle)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생활양식 접근법은 생활의 객관적 여건(무의식)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제약성을 다루면서도 동시에 행위자의 주관적 선호(의식)를 고려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개인적 행복감을 포괄할 수 있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전시민의 생활양식을 분석하여 행위자 관점에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전반적으로 연구·분석된 결과에 기초해서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의 전략을 모색·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시정 전략에 기초해서 분야별로 삶의 질 제고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별·개선하여, 그 결과가 실과별 주요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측면이 시정의 정책 발굴·수행에 연계·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한다.

넷째, 측정·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생활 영역 중에서 보다 더 시급하게 자원을 투입해야 할 분야를 설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결국, 본 연구의 초점은 무엇보다 ‘한정된 자원이 시민이 보다 더 필요한 분야에 투입되고, 그에 따라 물적·인적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두어지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검토

(1) 기존 연구의 한계

그동안 정책 연구가 시민의 의식(욕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적용해 온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주관적 의식·욕구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이러한 접근법은 주민의 주관적인 의식·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행위자의 ‘무의식’ 측면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2005년부터 대전광역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QOL 프로젝트’는 삶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주·객관 지표를 통합한 측정값을 제시하고 있다(정선기 외 2007). 그러나 이 QOL 프로젝트는 그 선구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 QOL 프로젝트의 삶의 질 분석은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왜냐하면 전체 시민을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하위집단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이처럼 전체 시민을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바람직한 것은 모든 시민 동일하게 유익할 것’이라는 지나친 일반화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 QOL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객관적인 통계자료 이외에 주로 주관적 만족도 지표에 기초해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칫 이러한 접근법은 일방적으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행위자(피면접자)는 ‘항상’ 합리적이라는 지나친 가정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은 행위자가 항상 객관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성찰적(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양식’(Lifestyle) 개념을 삶의 질 연구를 위한 유용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하여 왔다(Zapf 1987). 왜냐하면 생활양식 개념은 집단적·문화적 제약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주관적·객관

적 요소를 포괄하면서 ‘삶의 질’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삶의 질’ 개념은 현재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 용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의 요소를 포괄하기 때문에 어떤 단선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생활양식’과 같은 개념적 도구와 더불어 생활 세계에 대한 해석학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구·분석될 수 있다.

기존의 삶의 질 연구와 다르게 생활양식론적 접근법은 ‘전체 집단을 동일한 욕구의 존재’로 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개별 집단의 생활·문화적 특성에 따른 정책의 ‘유익성’을 고려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생활양식론적 접근법은 사회란 기본적으로 유사한 가치·인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어떤 특정 집단에게는 편익을 주는 정책이 다른 집단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어떤 사회의 집단적 하위문화는 항상 성별, 연령, 소득,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서 매개된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집단적 하위문화는 오랜 사회화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개인적·집단적 생활양식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집단별 생활양식의 차이에 입각한 정책의 도출이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발굴이며,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한다.

(2) ‘삶의 질’ 연구의 특성

삶의 질 연구는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의료, 마케팅, 경영, 도시계획 등 광범한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Seik 2001). 물론 삶의 질 연구가 이처럼 매력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의 학문적인 다의성과 복합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삶의 질 개념은 ‘개인적·집단적 요소’, ‘사적·공적’ 의미를 포괄하면서 성취·개선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나 ‘개입의 논거’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이 있다.

다음으로, 삶의 질 개념은 흔히 도시간 경쟁에서 타 도시와 비교우위를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Rogerson 1998; Royuela u.a., 2003). 왜냐하면 삶의 질 개념의 포괄성은 복합적인 도시생활을 망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삶의 질을 단순히 ‘장소 프로모션’과 ‘도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해하여 자본을 유인하고 도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개념화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단순히 자본을 유인하는 장소의 관점(특성)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떤 다른 집단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흔히 제기되고 있는 ‘경제(자본)’, ‘장소의 선택’, ‘삶의 질’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테제는 단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만 확인·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삶의 질’과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의 유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논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Rogerson 1998).

물론, 삶의 질을 단순히 ‘장소 프로모션·마케팅’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떤 다른 집단의 삶의 질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하게 된다. 그러나 삶의 질과 자본의 유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논증이 어렵다는 것이 곧 ‘자본 유인’과 ‘삶의 질’ 사이의 상관성, 즉 삶의 질이 ‘장소 프로모션’에 유용하다는 테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어떤 특정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려면 그 도시 정책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의 생활양식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삶의 질은 항상 그대상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만 해당 집단의 적절하게 측정·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문화적 제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해당 집단의 생활양식, 즉 그 신념, 가치,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삶의 질 개념의 다의성

삶의 질 개념은 개인적·집단적, 주관적·객관적, 사회적·문화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복합 개념이다(Shin 2003). 또한 ‘질’(quality)이라는 개

념은 어떤 다른 것과 차별되는 속성이나 가치를 표현하는 평가적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삶의 질’ 개념 역시 어떤 평가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인간적 ‘가치’는 같은 민족이나 국민 내에서도 개별 집단에 따라 상이한 선도와 우선순위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이한 종류·양(量)의 자원을 운용하고, 다른 가치와 생활양식으로 사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동일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동일한 사안을 평가할 때조차 빈번하게 우선순위를 다르게 부여하며, 그렇게 부여된 순위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¹⁾

이처럼 삶의 질은 단순히 객관적 생활 여건 이상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의미를 내포한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물질적 안녕뿐만 아니라, 심리적 혹은 주관적 웰빙도 포함하므로 사회·경제적 지표만 가지고는 균형이 잡힌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인간적 욕구는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사랑’, ‘인정’, ‘자유’, ‘참여’, ‘충족’ 등과 같은 단순히 객체적인 자원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의 두 개 차원인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은 서로 상이한 특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은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관적 만족도는 단지 행위자에게 행복한지 불행한지, 충족된 것인지 실망한 것인지 질문을 통해서만 측정이 가능하다.

단순히 보다 많은 재화의 생산·소유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물질적 자원은 사람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교통체증’, ‘환경오염’, ‘과도한 통제’ 등 비인간적인 도시화에 의해서 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삶의 질은 주관적·객관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접근법을 통해서만 적절하게 포착될 수 있다. 흔히 객관적 접근법은 사회·물리적 조건의

1) 사람들이 이전에는 개인적 부와 출세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점점 더 ‘자유’, ‘평등’, ‘자연’ 등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Inglehart 1995).

관점에서 삶의 질을 개념화하기 때문에 ‘재화’, ‘정보’, ‘교육’, ‘수명’, ‘의료’, ‘오염’, ‘주거’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행복의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객관적 접근법은 그동안 공적 기관에서 가장 널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기실 삶의 질을 해당 행위자와 무관하게 제3자(연구자)의 입장에서 규정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객관적인 역량(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을 통해서 삶의 질을 규정하는 주관적 접근법도 역시 측정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은 심리적 및 물리적 요인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따라서 ‘건강’, ‘복지’, ‘선택의 자유’ 등과 같은 ‘웰빙의 요인’과 ‘음식’, ‘의복’, ‘식수’, ‘교육시설’, ‘의료’ 등 ‘well-being’을 결정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삶의 질 연구가 ‘주관적 편향’과 ‘일반화의 오류’를 동시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제약을 고려한 ‘중범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²⁾ 그리고 사회·문화적 제약(의미)을 고려하는 중범위 전략은 지역성과 집단성을 동시에 포착해야만 한다(Liu 1979).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시·공적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공간)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며(Royuela u.a., 2003), ‘기회’(life-chance)는 항상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도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Royuela u.a., 2003).

(3) 생활양식 개념에 기초한 삶의 질 연구

80년대 중반 이후 서구에서는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Müller 1992). Aachen 대학의 Hörning 교수는 생활양식 개념을 ‘사회화 과정’의 연구에 적용하고 있고(Hörning & Michailow 1990), Humboldt 대학의 Müller 교수는 생활양식 개념을 사회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Bonn 대학의 Gluchowski는 일상적인 여가와 소비 활동의 분석에 활용하고 있으며(Gluchowski, 1988), Berlin 대학의 Zapf 교수는 생활양식

2) 기존의 삶의 질 측정 지표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그것이 서구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었다(Petrucci 2002).

개념을 ‘복지’ 및 ‘삶의 질’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Zapf 1987).

이처럼 생활양식과 관련한 다양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심리학적 접근’, ‘소비분석적 접근’, ‘생활세계적 접근’, ‘아비투스론적 접근’ 등 크게 4개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치와 욕구에 기초해서 생활양식을 연구한 심리학적 접근방법은 ‘스텐포드 조사 연구소’(SRI)에서 실시한 ‘서유럽의 가치와 생활양식’(Values and Lifestyles in Western Europe, 1981) 연구가 그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마슬로브(Maslow)와 리스만(Riesman)의 심리학 이론을 절충하여 구성한 ‘발달심리’(VALS: Values and Lifestyles) 유형학에 기초하고 있다.³⁾

그러나 VALS 유형학은 그 개념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시간·문화적 제약성을 넘어선 어떤 보편성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장기 문화 비교를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유용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역시 VALS 유형학은 발달심리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 변화를 추적하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용하지만 어떤 거시 분석을 위한 일반론적 의미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비 분석을 통한 생활양식 연구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소벨(Sobel) 등 일단의 학자들에 의한 연구의 성과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생활양식을 어떤 ‘관찰되고 표현되는 활동을 구성하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단지 소비 활동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인식되고 구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소비의 선호란 개인의 자유의지의 표현이며, 거기에 어떤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소유)의 크기일 뿐이라고 본다.⁴⁾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분석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하면서도 실제 경험적 분석에서는 가계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3) VALS-유형학은 1980년 조사연구에서 얻어진 것으로, 인구통계, 소유, 활동, 소비, 관점 등의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4) 그동안 이러한 행위자 소비 분석을 통한 생활양식의 연구는 주로 상품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이론적 접근법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전제와 경험적 분석 사이에 모순점은 우리가 생활양식 분석을 시도할 때 극복해야 할 점을 잘 보여준다. 즉 그것은 이론 없이 순수한 통계적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생활양식을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바로 소벨 등의 연구는 사회·문화적 매개 기제를 고려하지 않고 직접 생활양식을 도출함으로써 그 집단 문화적 특성을 방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비록 마케팅 조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상기의 심리 또는 소비 분석을 통한 접근법과는 다른 질적 방법을 적용하여 ‘생활세계’를 포착하려는 접근법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흔히 생활세계적 방법이라고 명명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SINUS 연구소의 생활양식 연구가 있다.

이 SINUS 모델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활세계는 그 주관적 문화(milieus) 및 생활양식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적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행위자의 일상적 지식이나 활동의 의미(Bedeutung)는 그 주관적 문화(milieus)와 생활양식을 고려함으로써만 비로소 포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SINUS 모델은 생활세계에 대한 해석적 이해에 기초해서 생활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확인하고 또한 거기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SINUS 모델의 강점은 생활세계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행위자의 가치·사고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INUS 모델은 미시적 생활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행위의 의미 해석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거시적인 구조·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취약하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이론적 약점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새로운 밀류(milieus)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한편, 위에서 설명된 연구의 흐름과는 다르게 생활양식을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론적 입장이 있다(Bourdieu 1982). 앞에서 설명된 SINUS의 생활양식 연구가 구조적 변동에 대해서 소홀히 함으로써 밀류(milieus)를 정태적으로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생활양식 연구는 그러한 일상 경험을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아비투스⁵⁾에 눈을 돌려 구조와 행위의 역동성을 포착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아비투스는 행위자의 일상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인지·판단·평가의 틀이며, 특정 생활양식(가치·의식·취향)을 산출하는 기제이다. 개별 행위자의 차원에서 그것은 사회화(경험)를 통해서 구조화(체화)된 인지·판단·평가의 틀이자 동시에 일상적 활동(실천)을 산출하는 ‘무의식적 기제’지만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집단적 차원의 무의식이라 할 수 있다.

아비투스는 ‘집단적 무의식’으로서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일상적 실천(활동)을 산출하는데, 그러한 일상적 실천은 ‘생활양식’으로 나타난다. 생활양식은 행위의 ‘표출적’, ‘상호작용적’, ‘평가적’, ‘인지적’ 차원을 포괄하며, 개별 행위자가 아닌 집단 차원의 가치·사고·소비·취향 분석의 열쇠를 제공해 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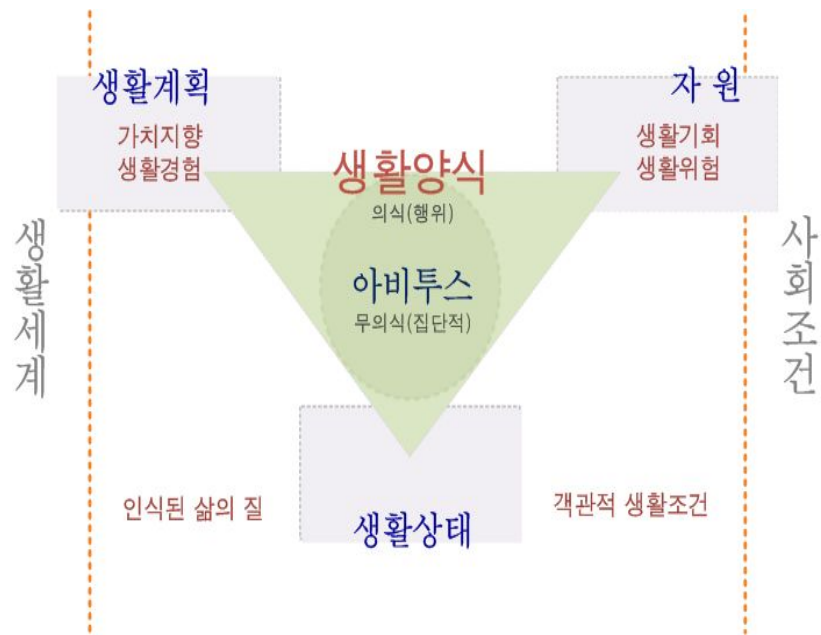
Zapf 등은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생활세계’(주관적 측면)과 ‘사회 조건’(객관적 측면)으로 구분하면서, ‘생활기회’, ‘생활위험’ 등 삶을 제약하는 자원을 객관적 요소로 놓고, 주체적으로 생활을 설계·영위하는데 영향을 주는 ‘가치지향’, ‘생활경험’ 등 생활계획을 주관적 요소로 규정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민의 생활상태는 ‘주관적으로 인식된 삶의 질’과 ‘객관적인 생활조건’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생활양식은 이러한 ‘생활상태’, ‘생활계획’, ‘생활기회’를 모두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생활양식은 삶의 질을 경험적으로 표현하고 인식가능하게 해주는 전략적인 개념이 된다.

결국, 삶의 질은 생활양식을 통해서 구현되며, ‘의식·무의식’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생활양식은 행위를 제약하는 생활조건과 그것을 인지하

5) 첫째, 표출적 활동(expressive Verhalten)으로서 생활양식은 인성 발달, 소비 활동, 여가활동, 생활상태, 취향형식 등 다양한 일상적 활동(여가·소비·취향)에서 관찰된다. 둘째, 상호작용 활동(interaktive Verhalten)으로서 생활양식은 사고 형식, 결혼 행위 등에서 나타나며, 교제 범위를 경계·구별 지운다. 셋째, 평가적 활동(evaluativen Verhalten)으로서 생활양식은 종교(교회)·전통(의례)·정치(선거)등에서 나타나는 가치 지향이다. 넷째, 인지적 활동(cognitive Verhalten)으로서 생활양식은 경험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자기 정체성’, ‘소속감’, ‘사회 인식’ 등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Müller, 1992).

고 생활을 설계해가는 주체적 행위가 결합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은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경험조사를 병행하되, 일차로 문헌검토를 통해서 ‘생활양식’ 및 ‘삶의 질’ 연구를 위한 이론 틀을 조작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개념 틀에 기초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설계한 후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조사·측정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연구는 기존의 생활양식 관련 연구를 개략적으로 검토하며, 기존의 조사된 데이터는 2004년 이후 대전시민의 ‘생활 실태’ 및 ‘삶의 질’ 관련 조사·연구 자료(대전발전연구원 2005~2007)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연구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2008년에 새롭게 수행하게 될 조사지표는 이전에 측정된 조사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2005년 조사지표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삶의 질’ 지표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WHO의 지표에 기초해서 조사했던 연구결과(대전발전연구원 2006, 2007)를 활용하고, 생활양식과 관련한 문항은 2005년 조사된 ‘리서치 앤 리서치’의 대전시민의 생활실태 및 라이프스타일 조사·연구 결과를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WHO의 삶의 질 지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표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수준이 높고 시·공적 제약을 넘어서 지역간 비교를 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서 가치는 크지만 초점이 주로 ‘건강생활양식’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목표하고 있는 정책 발굴에 필요한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가능하면 기 연구된 조사결과를 활용하되 2008년 새롭게 측정된 자료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측정지표를 일치시키되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지표를 활용하였다. 지표의 선별은 일차적으로 대전시민의 생활양식의 특성과 가치선호에 대한 분석하여 시정의 전략과 정책방향을 영역별로 개선·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우선 대전시민의 ‘의·식·주’, ‘가치지향’, ‘생활경험’을 통해서 생활양식을 측정하고, 삶의 질은 WHO의 측정지표 중에서 ‘주거’, ‘정보’, ‘여가’, ‘장소’, ‘의료’, ‘교통’ 관련 지표를 선별·분석하여 시정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에 기초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정 사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2)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 활용된 1차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 방식으로 측정된 것이며, 표본의 추출은 비례층화표집방법(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이 적용되었다.

우선, 1단계는 대전광역시의 5개 구별 인구수(20세 이상 성별, 연령대별)에 비례하여 표본의 수를 할당하고, 다음 2단계는 각 구별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조사 대상 동을 선정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는 면접원이 조사 대상 동마다 각각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주거 및 거주 유형 고려)하였다.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08	'07	'06	'05	'08	'07	'06	'05	'08	'07	'06	'05	'08	'07	'06	'05	'08	'07	'06	'05	'08	'07	'06	'05
동 구	29	98	86	70	16	91	62	39	26	89	62	41	22	70	46	20	23	81	58	20	116	429	314	190
중 구	28	101	81	77	29	105	81	47	28	100	75	43	21	76	54	20	26	86	60	15	132	48	351	212
서 구	48	193	168	152	64	210	176	94	60	214	185	102	39	119	94	42	28	109	81	1	239	85	704	391
유성구	24	81	66	75	34	122	90	45	27	98	73	40	14	46	37	18	12	47	38	5	111	394	304	188
대덕구	22	78	68	78	27	96	76	44	25	88	76	42	14	51	42	19	14	51	41	15	102	334	338	198
계	151	551	469	452	170	624	485	239	166	539	471	238	110	362	273	119	103	374	278	36	700	2500	1976	1,164

대전시민의 생활양식과 관련한 자료는 2005년 9월 수행된 ‘대전시민의 생활실태 및 라이프스타일 조사’와 2008년 8월에 새롭게 수행된 ‘대전시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대전시민의 삶의 질은 2006년 7월과 2007년 9월 2차례에 걸쳐 연차별로 수행된 ‘대전시민의 삶의 질 조사’와

2008년의 ‘대전시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기 조사된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측정지표는 기존의 측정지표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단지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정을 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활양식 관련 변수는 대부분 2005년에 기 개발된 측정지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⁶⁾

생활양식 관련 2005년 자료는 대전발전연구원과 리서치&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한 ‘대전시민의 생활 실태 및 라이프스타일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삶의 질 관련 자료는 2006년과 2007년도에 WHO의 삶의 질 표준 지표에 기초해서 대전발전연구원이 수행한 ‘대전시민의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2008년에 새롭게 수행된 생활양식 및 삶의 질 관련 조사는 기존에 연구된 자료와 연계·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2005년도에 조사된 측정 지표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간	생활양식	2006.7.24~8.5(11일)	-	-	2008.8.19~8.29(10일)
	삶의 질	-	2006.7.24~8.5(11일)	2007.9.27~10.18(21일)	2008.8.19~8.29(10일)
대상	생활양식	시민(20세이상1000명)	-	-	시민(20세이상700명)
	삶의 질	-	시민(20세이상1,976명)	시민(20세이상2,500명)	시민(20세이상700명)
방법	생활양식	대인면접조사 (설문지)	대인면접조사 (설문지)	대인면접조사 (설문지)	대인면접조사 (설문지)
	삶의 질				
내용	생활양식	※ 5개 영역 13개 범주의 62개 생활양식 지표			
	삶의 질	※ WHO의 26개 삶의 질 표준 지표			

6) 표본의 추출이나 조사의 수행 방식은 동일하지만 기 수행된 관련 조사가 각기 별개로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표본의 수나 조사의 시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4) 분석틀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단별 생활양식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제로부터 크게 4개 범주의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집단별 분석을 위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추가하였다.

첫째, 기본적인 의식주 관련 집단적 생활양식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15개의 기본 지표를 설정하였다.

둘째, 집단적 인식·가치·태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가족, 성, 인생관 등에 대한 17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정책 분야에 대한 생활양식 집단별 인식(관심)을 포착하기 위해 경제, 교육, 환경, 건강, 여가 등 5개 영역의 25개 측정 지표를 설정하였다.

넷째, 시정과 광고·정보에 대한 집단적 관심을 측정하기 위한 11개 측정 지표를 설정하였다.



<분석틀>

이상과 같이 4개 범주 총 68개 생활양식 관련 지표를 ‘연령’, ‘지역’, ‘소득’, ‘직업’, ‘교육’ 등 5개의 인구사회학적 지표와 연계·분석하여 집단적 생활양식의 특성을 포착하고, 그 집단적 생활양식 특성을 WHO의 ‘주거’, ‘정보’, ‘여가’, ‘장소’, ‘의료’, ‘교통’ 관련 삶의 질 지표와 연계·해석하여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생활양식 측정 지표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연계한 ANOVA 분석을 통해서 집단적 생활양식의 차이를 포착하고, 다음으로는 WHO의 삶의 질 지표의 측정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결합하여 하여 대전시민의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 차이를 탐침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활양식의 집단별 특성과 WHO의 지표에 기초해서 측정된 집단별 삶의 질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해석하여 시정의 집단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시정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정의 방향 설정 및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3. 대전시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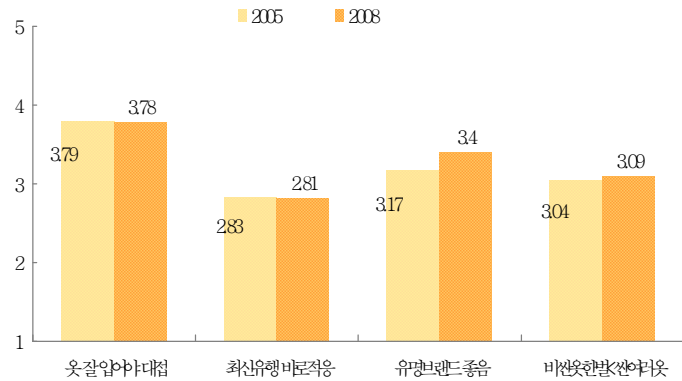
1) 생활양식의 특성

(1) 일상생활

○ 의(衣)생활

의(衣)생활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외관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에 대해서는 수용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의 의류의 유명 브랜드에 선호도는 여전히 높으며, 의복을 구입하는 소비양식은 다분히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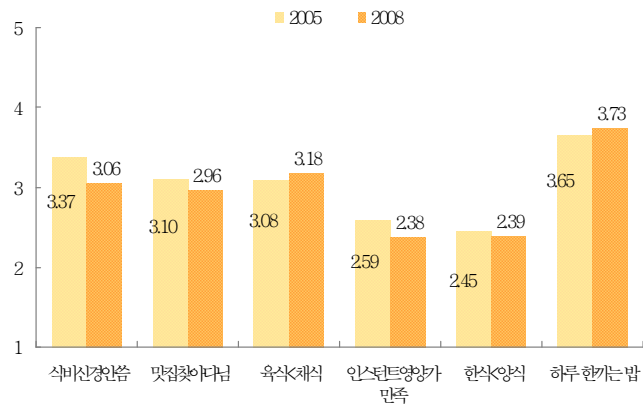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잘 입어야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	3.79	3.78
새로운 패션과 유행은 곧바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2.83	2.81
의류는 유명브랜드 제품이 역시 좋다고 생각한다	3.17	3.40
비싼 옷 한 벌보다 싼 옷 여러 벌 입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3.04	3.09

○ 식(食)생활

식(食)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와 양식보다는 한식을 선호하며, 채식을 즐기는 전통적인 음식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먹거리를 위한 지출에는 역시 후한 태도를 보여주지만, 2008년은 지출에 대해 약간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양식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고, 특히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한국적 식생활 양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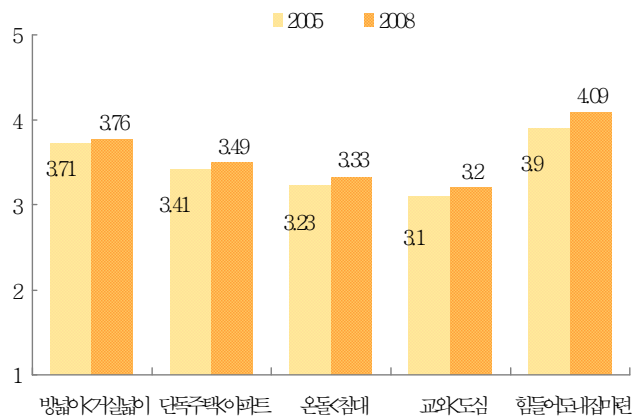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나는 먹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3.37	3.06
맛이 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편이다	3.10	2.96
육식보다 채식을 즐긴다	3.08	3.18
인스턴트 식품도 영양가는 괜찮다	2.59	2.38
외식을 할 때 한식보다는 양식으로 하고 싶다	2.45	2.39
한 끼 식사는 꼭 밥이어야 한다	3.65	3.73

○ 주(住)생활

주거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역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러한 성향이 점차 더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서구 사회와 다르게 시민의 자기집 마련에 대한 애착은 매우 강해서 ‘힘들어도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4.09 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온돌보다는 침대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고, 교외보다는 도심에 살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어, 점차 도시적 생활양식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이 나타난다.



구분	2005	2008
방이 좁 좁더라도 거실이 넓은 것이 좋다	3.71	3.76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좋다	3.41	3.49
온돌보다 침대가 더 좋다	3.23	3.33
복잡하더라도 교외보다는 도심에서 살고 싶다	3.10	3.20
힘들어도 내 집은 꼭 가져야 한다	3.90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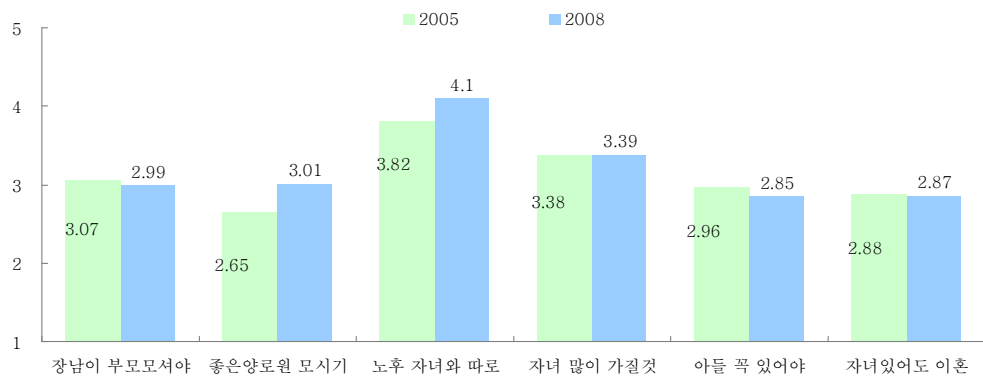
(2) 가치지향

○ 가족에 대한 인식·태도

노부모를 양로원에 모셔도 좋다는 생각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는 약해지고 있다.

아직도 능력만 있다면 자식을 많이 두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는 약해지고 있다.

또한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태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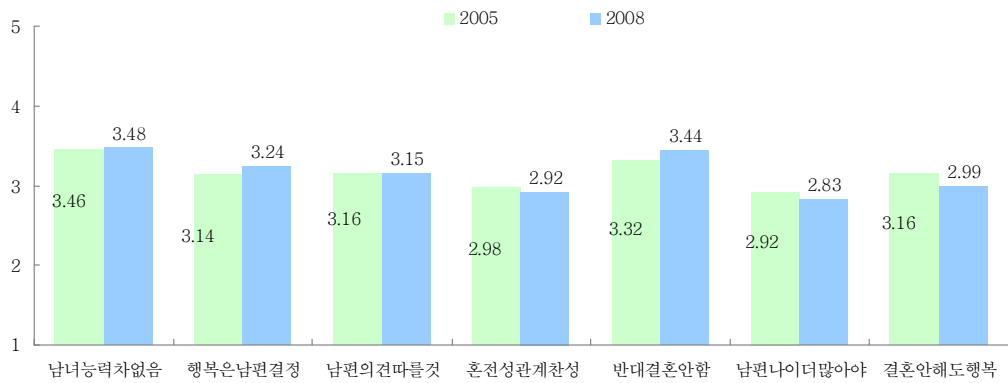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부모는 가능한 한 장남이 모시는 것이 좋다	3.07	2.99
시설만 좋다면 부모를 양로원에 모셔도 좋다고 생각한다	2.65	3.01
나는 능력만 된다면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살겠다	3.82	4.10
능력만 된다면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좋다	3.38	3.39
아들은 꼭 낳아야(있어야) 한다	2.96	2.85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좋지 않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2.88	2.87

○ 성·결혼에 대한 인식·태도

여성의 업무능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전 성관계나 결혼에 대한 태도도 여전히 보수적이며, 결혼을 행복한 삶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이 보인다.

배우자 중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은 약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결혼의 문제를 가족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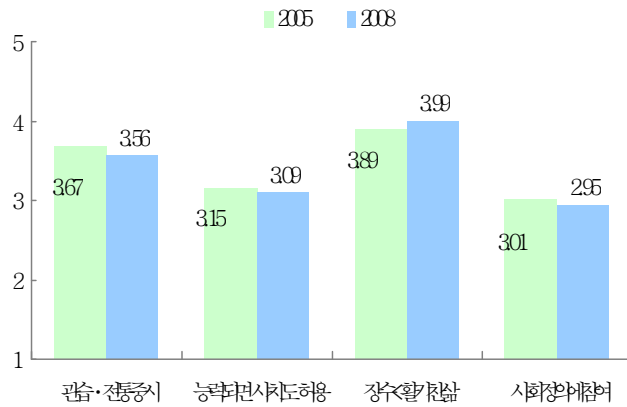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일하는 능력만 놓고 보면 남녀간 차이가 없다	3.46	3.48
여성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 있다	3.14	3.24
부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3.16	3.15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상관없다	2.98	2.92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32	3.44
결혼 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	2.92	2.83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3.16	2.99

○ 인생관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치스런 소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인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직도 관습이나 전통을 사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구분	2005	2008
관습이나 전통은 현대 사회를 사는데 도움이 된다	3.67	3.56
능력만 된다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3.15	3.09
오래 사는 것보다 활기차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3.89	3.99
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 잡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3.01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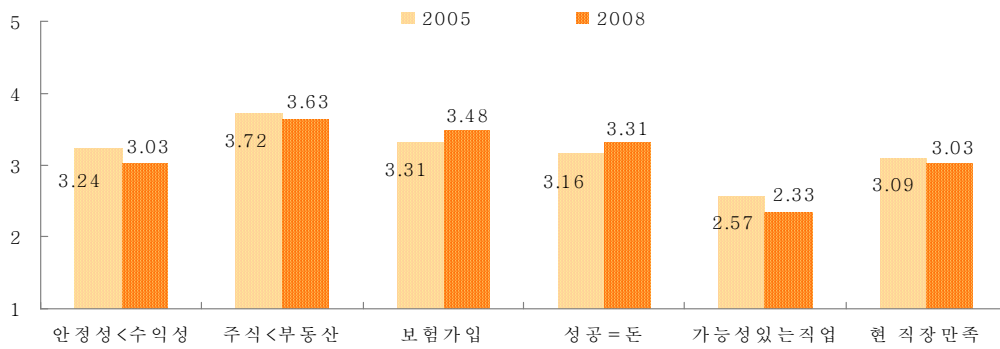
(3) 생활의 경험·태도

○ 경제·직장

수익 지향적인 경제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부(富)를 인생의 성공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제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며, 미래를 위해 보험을 준비하는 안전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전에는 좋은 일자리가 적다는 인식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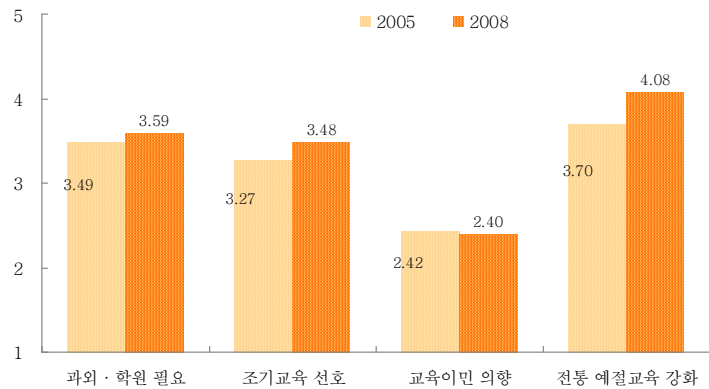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돈을 투자한다면 안전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쪽에 투자하겠다	3.24	3.03
돈에 여유가 있다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3.72	3.63
갑자기 경제적 능력이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들고 있다	3.31	3.48
인생의 성공여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달려 있다	3.16	3.31
대전에는 가능성이 있는 직장이나 직업이 많다	2.57	2.33
나 또는 나의 가족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	3.09	3.03

○ 교육

과외나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기교육에 대한 선호도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생각하는 경향은 아직 그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전통·예절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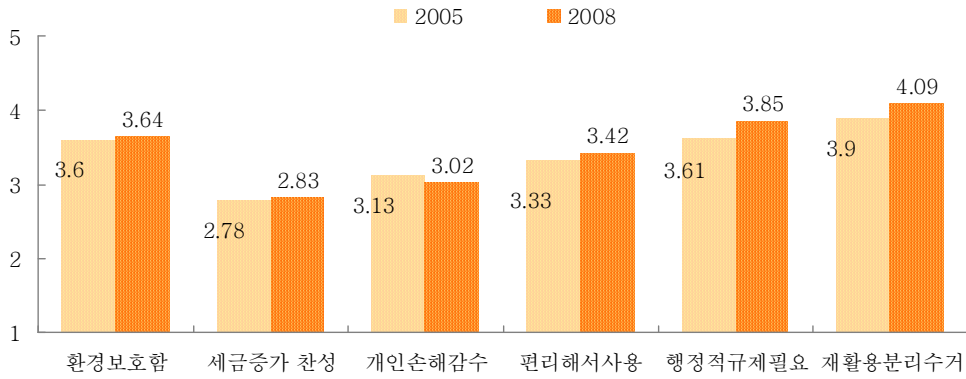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과외나 학원수업이 필요하다	3.49	3.59
자녀에게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3.27	3.48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42	2.40
전통문화 예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70	4.08

○ 환경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높게 나타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 세금의 지출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좋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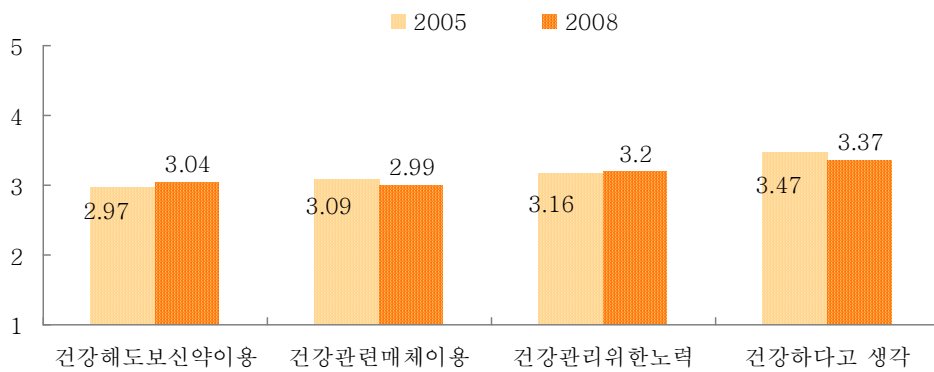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나는 환경보호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3.60	3.64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2.78	2.83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 개인적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	3.13	3.02
환경에 나쁜 줄 알면서도 편리해서 쓰는 제품이 많다	3.33	3.42
좋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61	3.85
귀찮더라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 편이다	3.90	4.09

○ 건강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건강 관련 정보 매체에 대한 관심은 약간 낮아졌고, 보약 등과 같은 수단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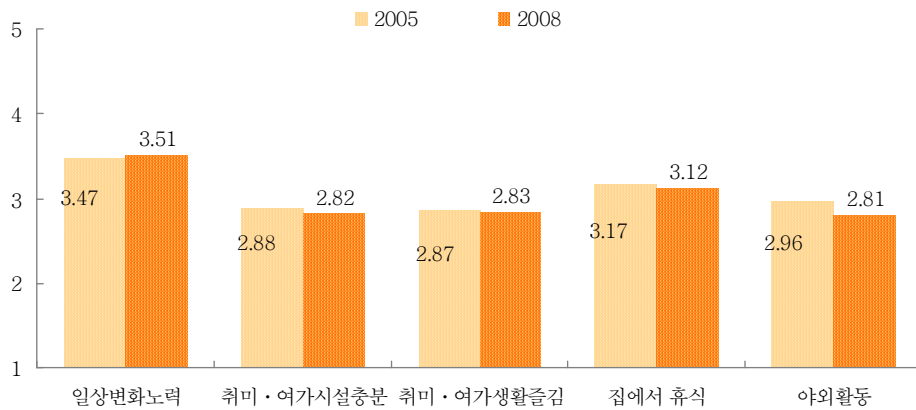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특히이른 데가없더라도 보신용으로 한약보약이나 비타민 영양제를 먹곤 한다	2.97	3.04
건강에 관한 기사나 TV 프로그램은 꼭 본다	3.09	2.99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이나 체중조절을 하고 있다	3.16	3.20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3.47	3.37

○ 여가

일상적인 생활을 무료하지 않게 지내기 위해서 변화를 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작 활동적인 능동적 여가 행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역 주변에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하는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말에는 주로 TV 등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를 즐기는 성향이 높며, 운동이나 등산 같은 활동적인 여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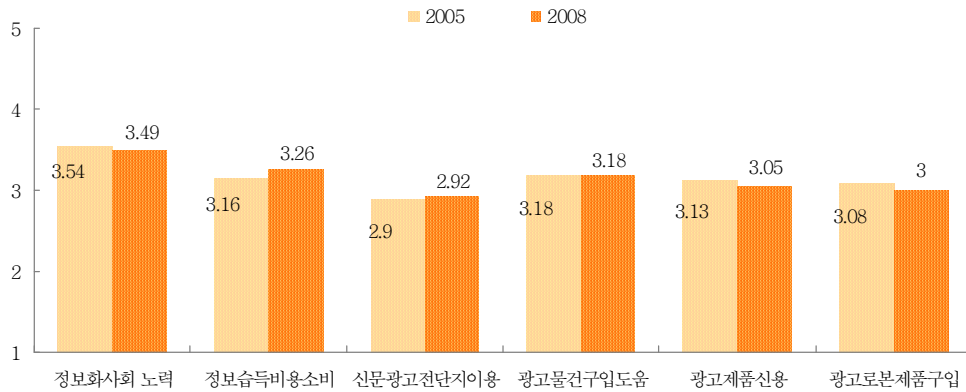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나는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47	3.51
내 주거지역에는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있다	2.88	2.82
나는 취미나 여가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다	2.87	2.83
주말에는 TV를 보면서 집에서 쉬는 편이다	3.17	3.12
주말에는 운동이나 등산, 레저 등을 즐긴다	2.96	2.81

○ 정보·광고

사회생활에서 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정보화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투자도 커지고 있다.

광고가 물건을 살 때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고, 광고에서 한 번 본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광고에 나온 제품을 더 신용하면서도 정작 신문 등에 끼워오는 광고 전단지 등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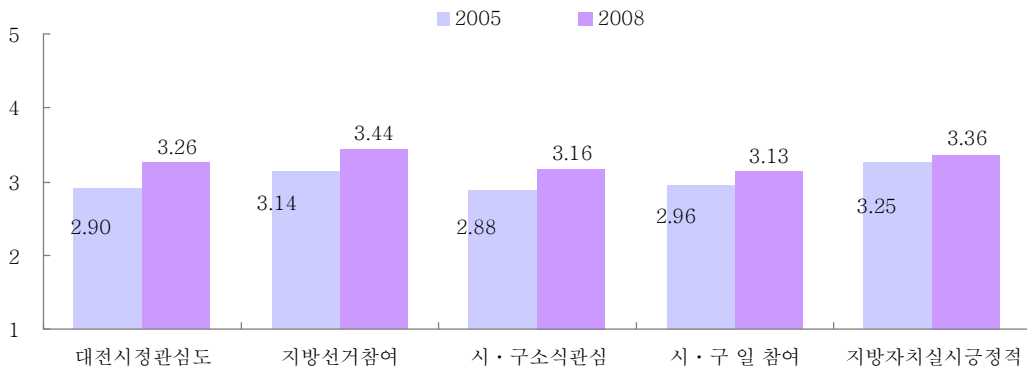


구분	2005	2008
나는 정보화 사회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3.54	3.49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돈을 들이는 것은 아깝지 않다	3.16	3.26
신문에 끼워오는 광고 전단지의 내용을 읽어보는 편이다	2.90	2.92
광고에서 얻은 정보는 물건 살 때 도움을 준다	3.18	3.18
광고를 하는 제품은 광고를 안 하는 제품보다 믿을 수 있다	3.13	3.05
나는 광고에서 자주 본 제품을 사는 편이다	3.08	3.00

(4) 시정에 대한 관심

시정과 구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적 태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05	2006
나는 대전시정에 관심이 많다	2.90	3.26
나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구청장 등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는 반드시 참여한다	3.14	3.44
시나 구 관련 소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다	2.88	3.16
시정이나 구정과 관련하여 내가 할 일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2.96	3.13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25	3.36

2) 삶의 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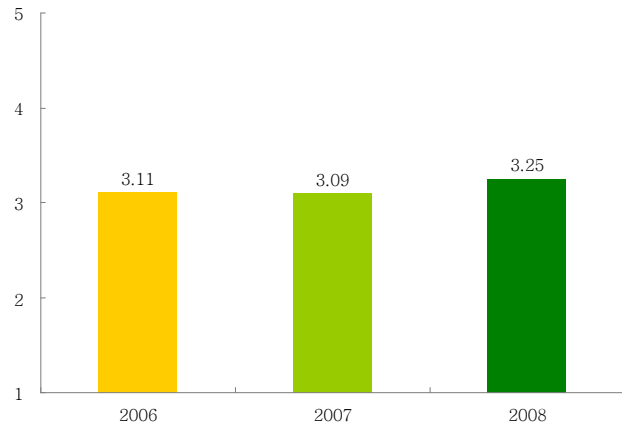
(1) 삶의 질 변화 추이

WHO의 삶의 질 지표에 기초해서 지난 3년(2006, 2007, 2008) 동안 측정된 결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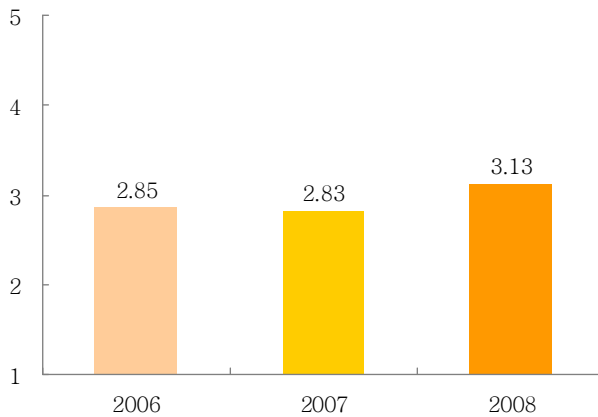
우선, 정책 분야별 삶의 질 변화를 보면 WHO의 26개 삶의 질 측정지표 중에서 시정과 연계될 수 있는 6개 지표(주거, 정보, 여가, 장소, 의료, 교통)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의료’, ‘교통’ 등의 지표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소’, ‘주거’ 등의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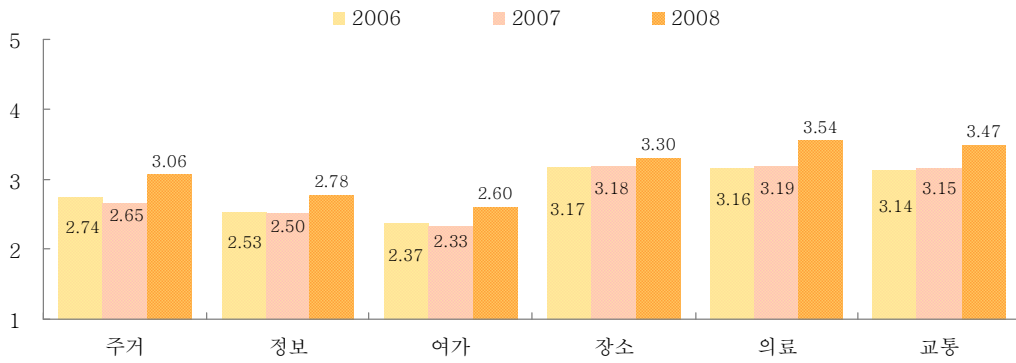


<6대 정책분야 삶의 질 변화>



7) 이 삶의 질 측정은 WHO의 26개 국제 표준 삶의 질 지표를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WHO의 지표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점 이상이면 긍정적인 경향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와 ‘여가’의 분야는 약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	삶의 질 지표	2006	2007	2008
주거	당신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주거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2.74	2.65	3.06
정보	당신은 매일매일 삶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2.53	2.50	2.78
여가	당신은 레저(여가) 활동을 위한 기회를 어느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2.37	2.33	2.60
장소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3.17	3.18	3.30
의료	당신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3.16	3.19	3.54
교통	당신은 당신이 사용하는 교통 수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3.14	3.15	3.47
종합		2.85	2.83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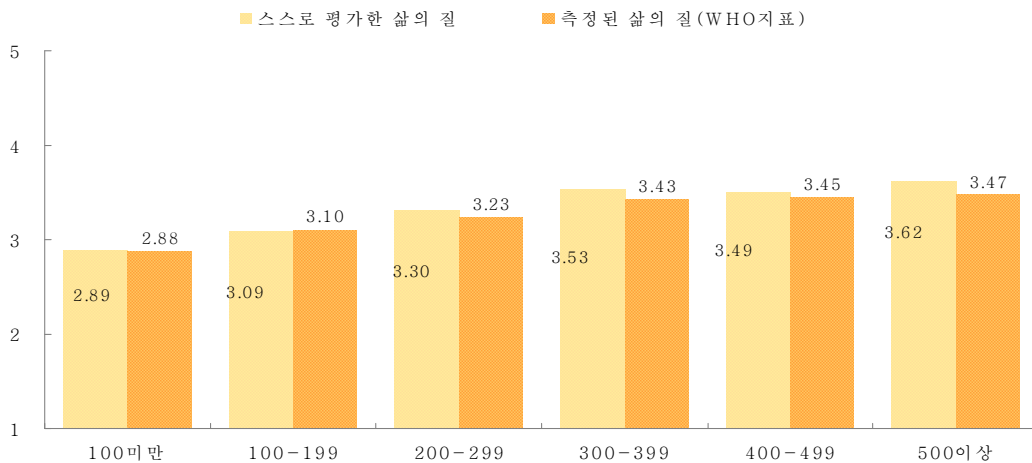
(2) 집단별 삶의 질

○ 소득집단

소득집단별 삶의 질 측정 결과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인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삶의 질 측정값과 WHO의 지표에 기초한 측정값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기대되는 것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만원 미만의 소득 집단의 경우는 스스로의 삶의 질을 WHO의 측정값보다 낮게 평가한 반면에 200만원 이상의 소득 집단인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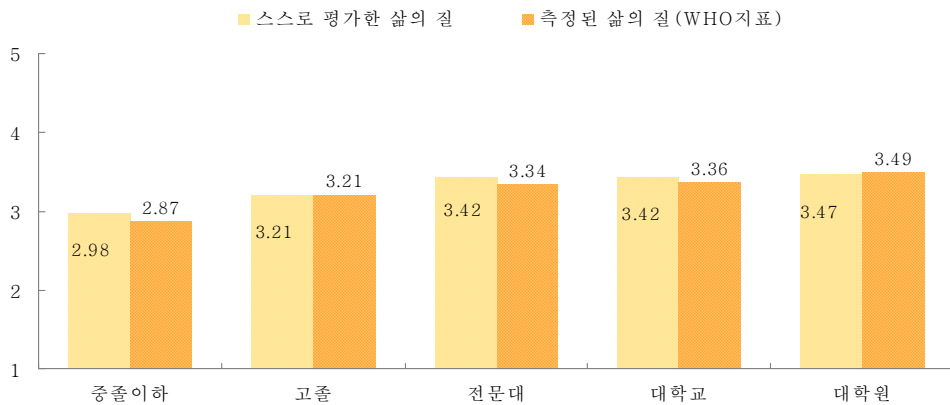


○ 학력 집단

대체로 기대하는 것처럼 학력에 따른 집단별 삶의 질 측정 결과도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지는 정(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력에 따른 집단별 삶의 질은 중졸이하의 학력집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집단의 경우와 반대로 오히려 대학원 이상 고학력 집단을 제외한 낮은 학력의 집단은 스스로의 삶의 질을 WHO의 측정값보다 높거나 같게 평가하고 있다.



○ 직업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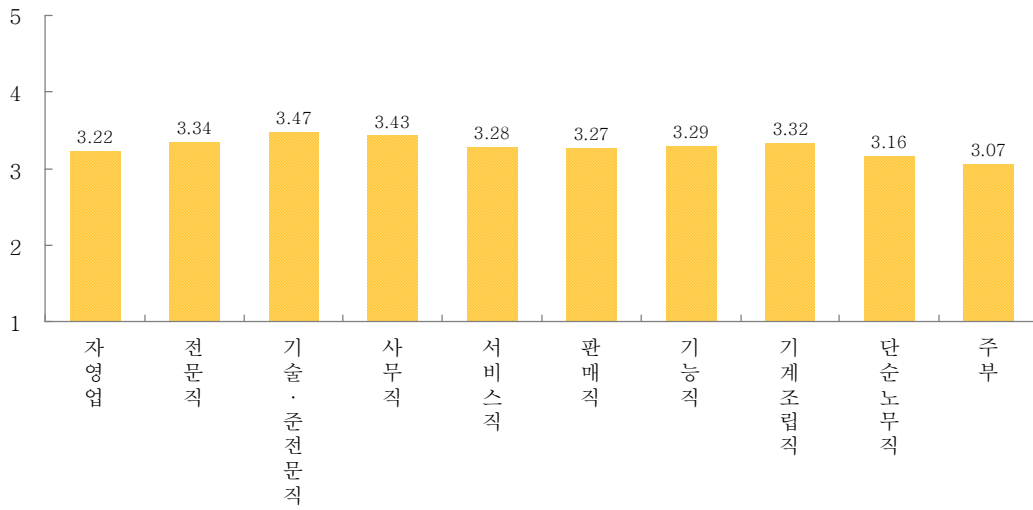
대전시민의 직업에 따른 집단별 삶의 질 평가는 전체 직업군이 모두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또한, ‘기계조작·조립직’과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든 직업집단의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삶의 질이 WHO 지표에 의한 측정값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직업집단 중에서 비교적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는 직업군은 ‘기술·준전문직’(3.47), ‘사무직’(3.43) 등이었으며, 가장 낮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집단은 ‘주부’(3.07)로 나타났다.⁹⁾

8) 직업집단 변수에 대한 분석은 애초 설문지에 있었던 직업집단 중에서 ‘농·임·어업’, ‘고위임직원’, ‘단순노무직’, ‘학생’, ‘직업군인’, ‘무직’ 등 5개 직업군은 부분수가 적어 대표성이 문제된다고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9) 그러나 ‘주부’를 포함한 모든 직업 집단이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측정 점수를 보이고 있어 직업집단별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은 큰 불균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구분	자영업	전문직	기술·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	기계조립직	단순노무직	주부
스스로 평가한 삶의 질	3.23	3.50	3.47	3.45	3.40	3.31	3.39	3.30	3.13	3.11
측정된 삶의 질(WHO지표)	3.22	3.34	3.47	3.43	3.28	3.27	3.29	3.32	3.16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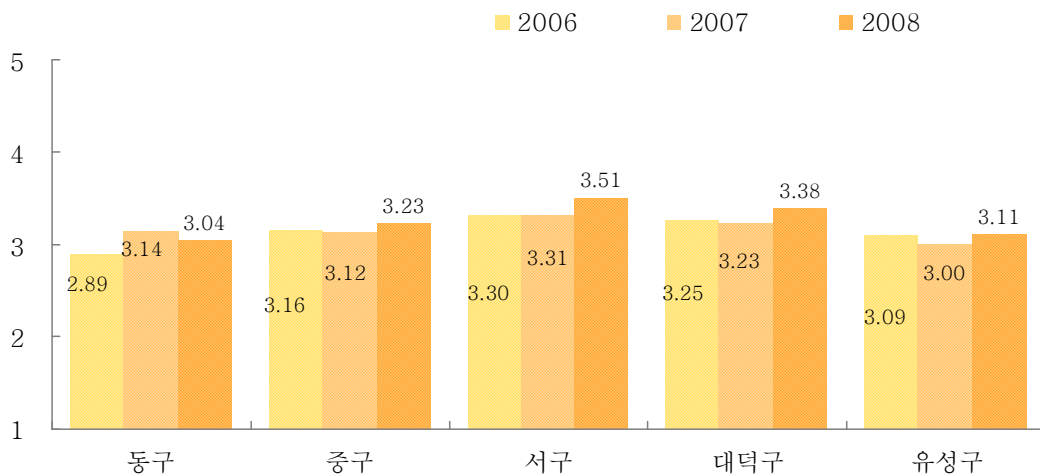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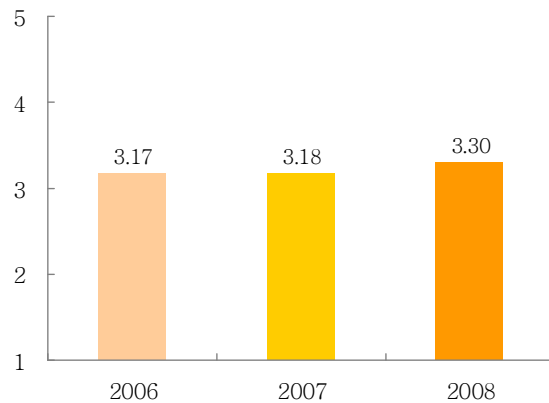
(3) 정책 영역별 삶의 질

○ ‘살고 있는 장소의 상태’

시민이 ‘살고 있는 장소의 질(quality)’에 대한 WHO 지표의 측정 결과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개선되어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서구’(3.51), ‘대덕구’(3.38), ‘중구’(2.23), ‘유성구’(3.11), ‘동구’(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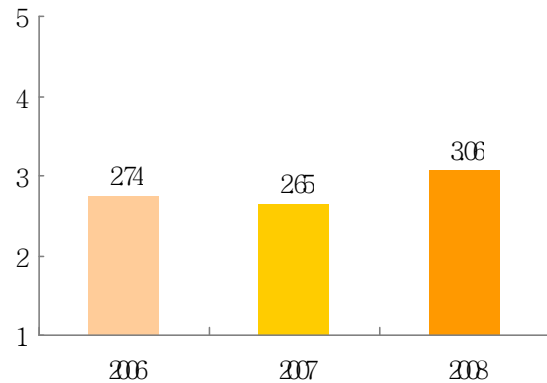
특히 ‘동구’의 경우는 유일하게 전년도보다 낮은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좀 더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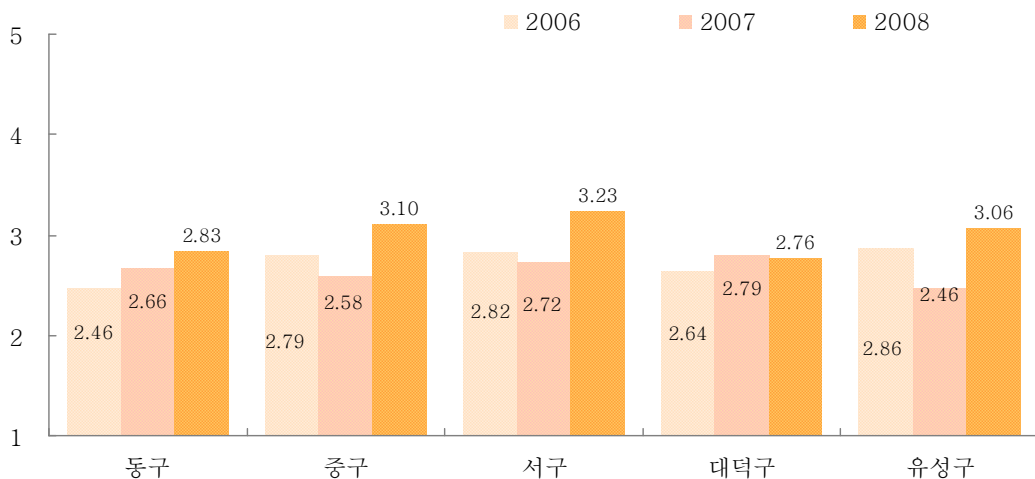
○ ‘건강에 좋은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의 질’(quality)에 대한 측정 결과는 점차 개선되는 경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2008년 현재는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에 대한 지역별 수준을 보면 ‘대덕구’(2.76)를 제외하고는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구’(3.23), ‘중구’(3.10), ‘유성구’(3.06) 등은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의 주거 환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덕구’(2.76), ‘동구’(2.83) 등은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측정되고 있어 향후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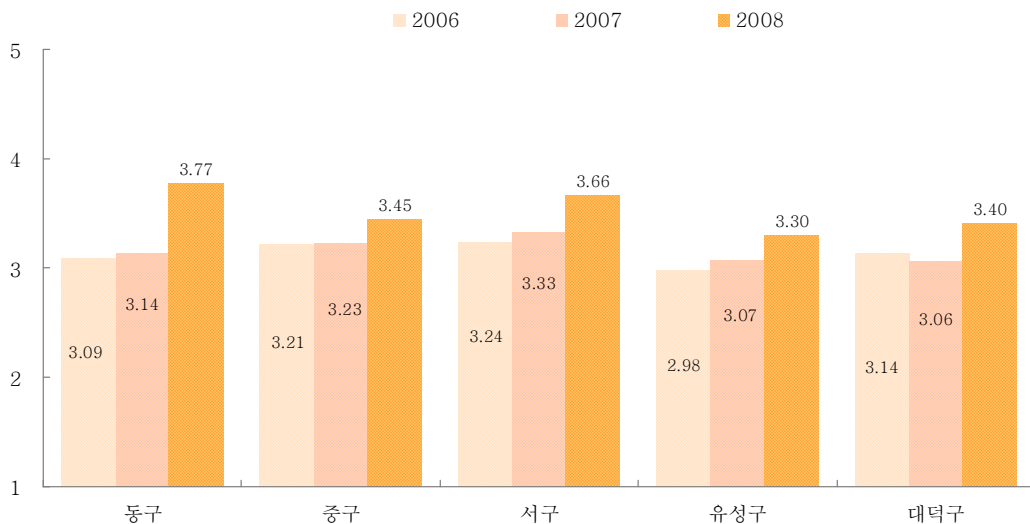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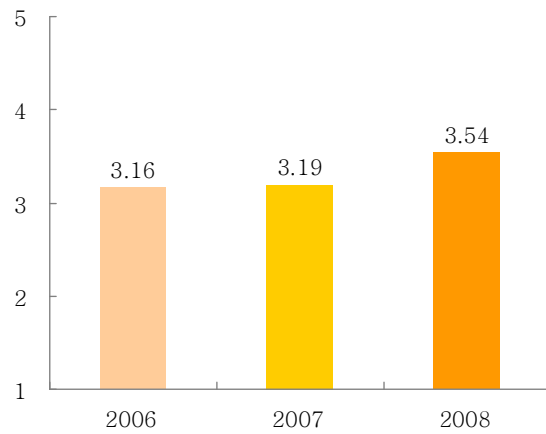


○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질(quality)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구의 의료서비스 편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구의 경우 의료서비스 편이성 부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래의 의료시설이 아직도 원도심 지역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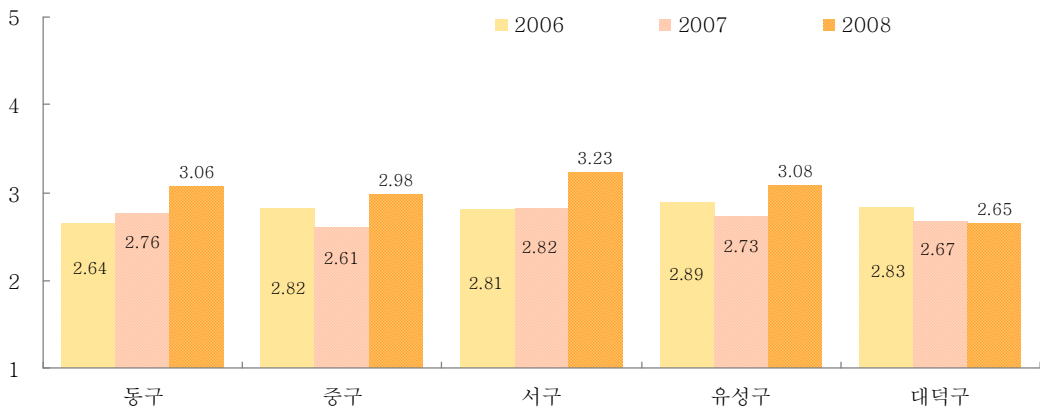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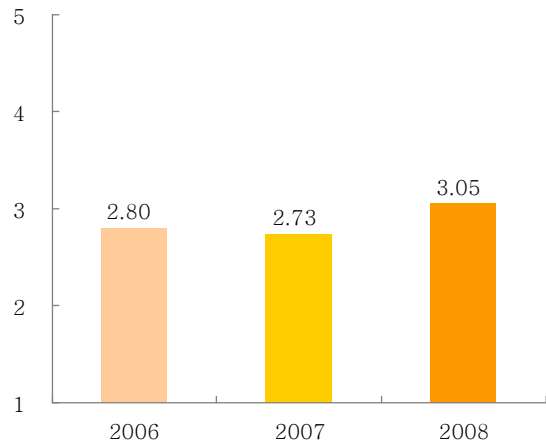


○ 안전

대전의 ‘안전’에 대한 질(quality)은 크게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대덕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3개구가 긍정적인 수준 이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구’(3.23), ‘유성구’(3.08), ‘동구’(3.06) 등은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구’(2.98)와 ‘대덕구’(2.65)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덕구의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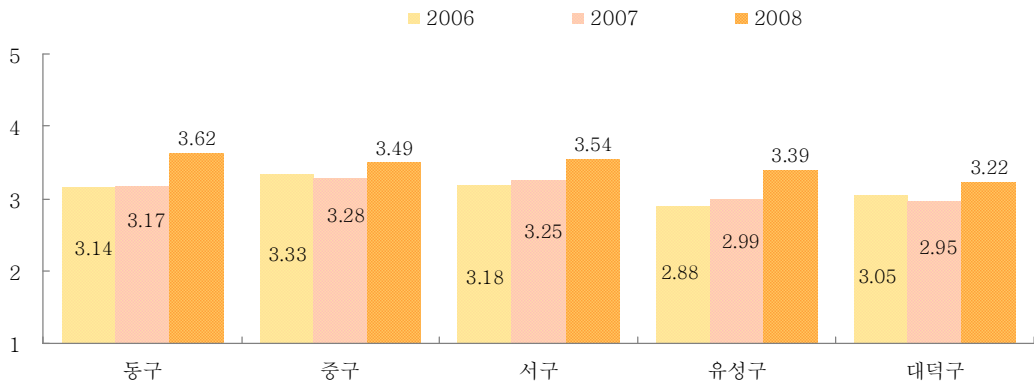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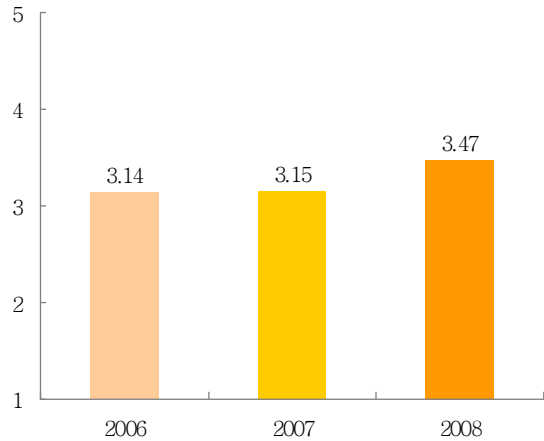


○ 교통수단

교통수단의 질(quality)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차적으로 더욱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구’(3.62), ‘서구’(3.54), ‘중구’(3.49), ‘유성구’(3.39), ‘대덕구’(3.2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성구와 대덕구는 2008년도에 들어서 긍정적인 수준 이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덕구의 경우 교통의 편이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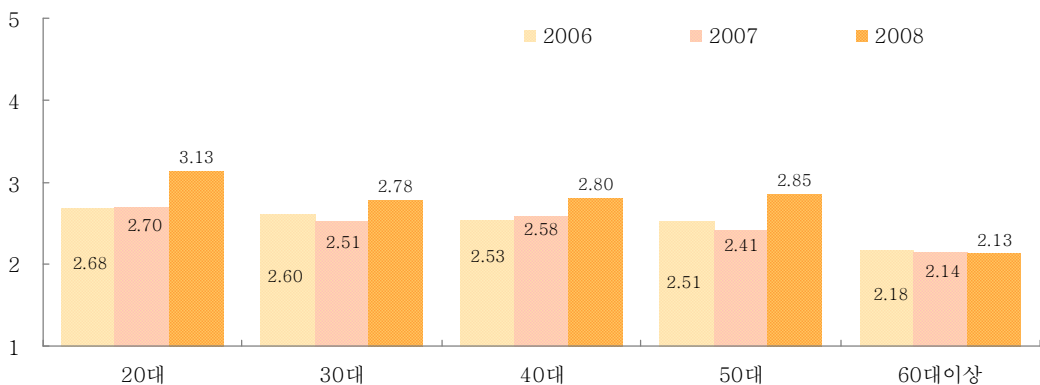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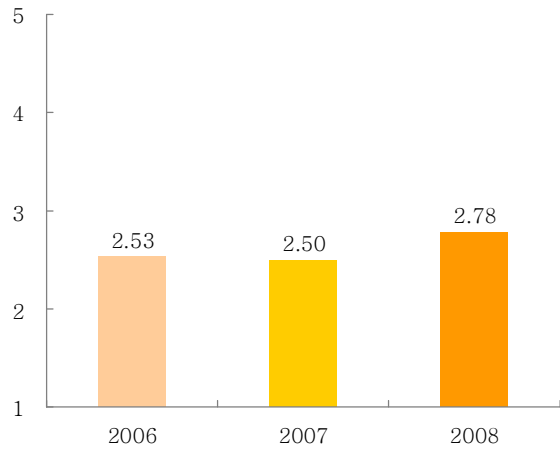


○ 정보

시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이성'도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보인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 '창조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접근성에서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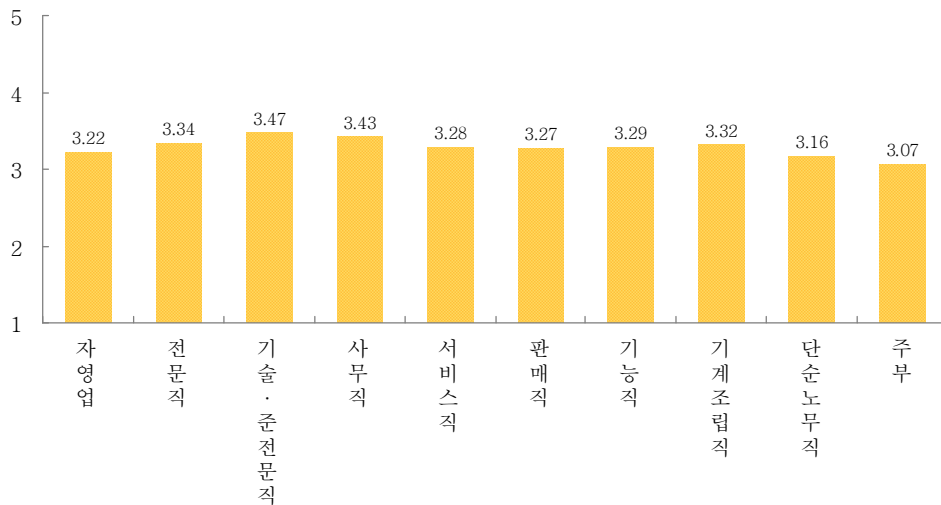
연령 집단별 정보접근성은 2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는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생활양식의 정책적 함의

(1) 경제

WHO의 삶의 질 표준지표에 기초해서 측정한 직업집단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준전문직’(3.47)과 ‘사무직’(3.43)이 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주부’(3.07)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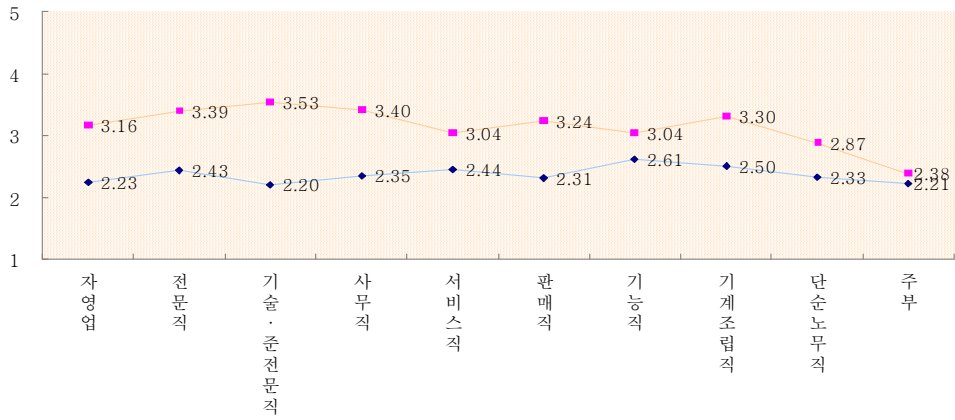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3.04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제공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2.32점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노동능력에 대한 긍정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집단은 ‘기술·준전문직’(3.53), ‘사무직’(3.40) 순이었고, ‘단순노무직’(2.87)의 경우는 직업군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¹⁰⁾

특히 ‘기술·준전문직’의 경우는 일자리의 질(quality)은 높는데 반하여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양질의 관련 업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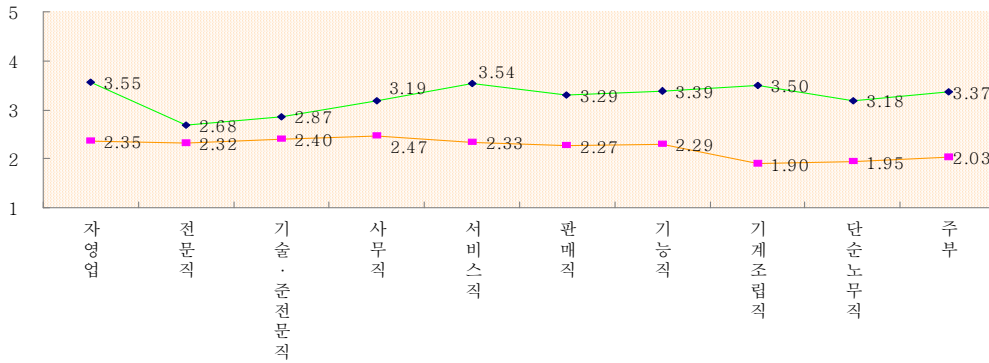
10) 가사일을 전업으로 하는 주부의 경우는 비록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직업집단의 비교에서 의미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였다.

◆ 생활양식-대전에는 가능성이 있는 직장이나 직업이 많다
 ■ 삶의 질-당신은 당신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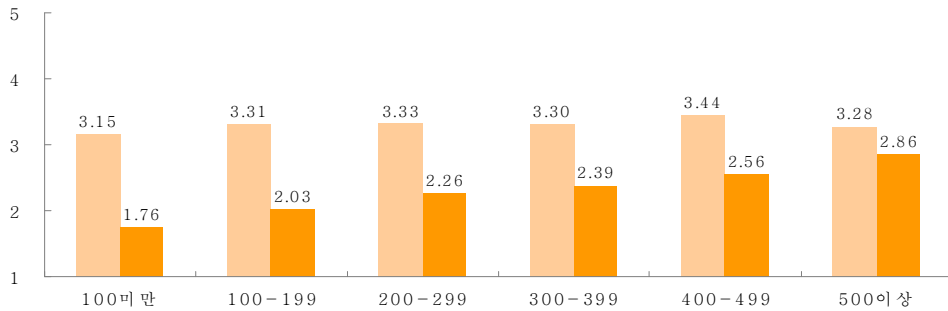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전문직’(2.68), ‘기술·준전문직’(2.87)을 제외하고 모든 직업군이 금전 지향적인 생활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금전적 욕구에 대한 충족도는 전체 직업군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그 중에서도 ‘기계조립직’, ‘단순노무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생활양식-인생의 성공 여부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 있다
 ■ 삶의 질-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생활양식-인생의 성공 여부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 있다
 ■ 삶의 질-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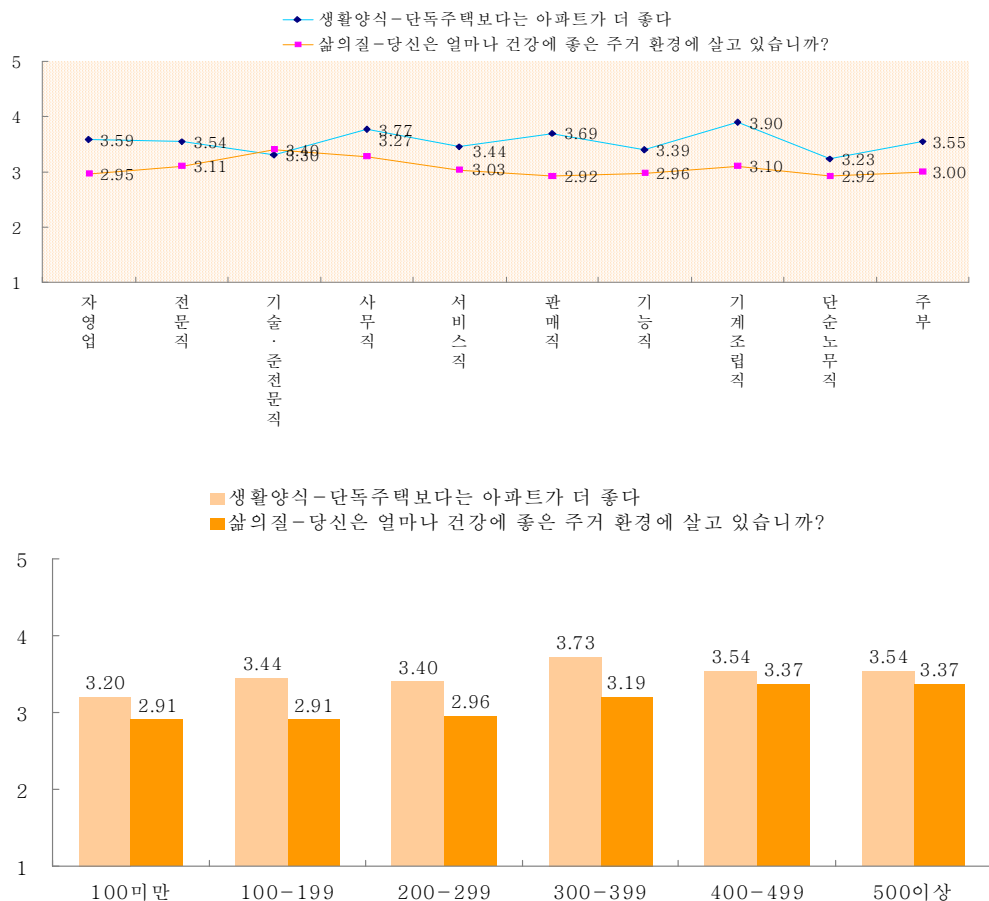


(2) 주거

직업집단과 소득집단을 막론하고 모든 집단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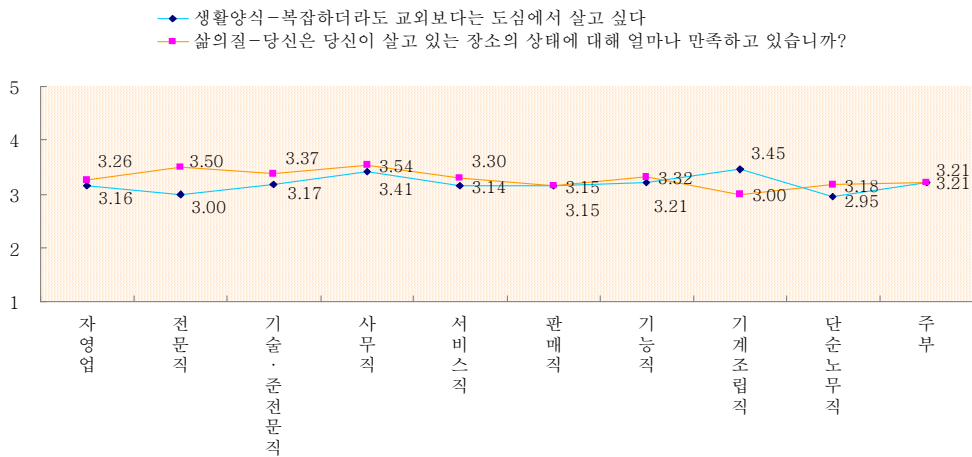
주거 환경의 질에 대해서는 직업집단의 경우 ‘단순노무직’(2.92), ‘판매직’(2.92), ‘자영업’(2.95) 등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직업집단이 긍정적인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소득집단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은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보다 낮은 소득의 집단은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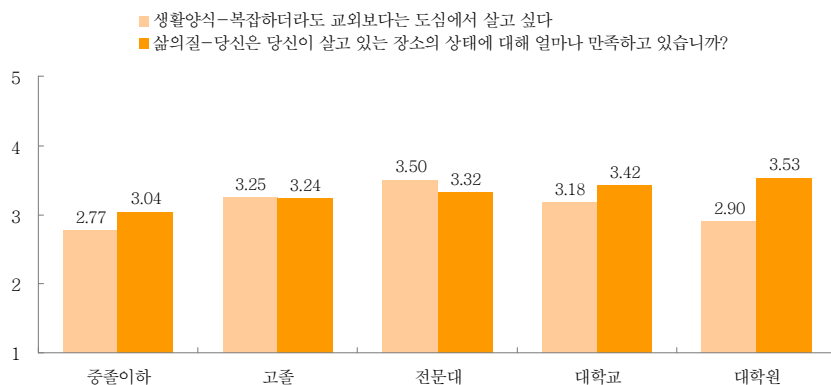
(3) 장소

전체적으로 ‘단순노무직’(2.95) 이외의 모든 직업집단이 교외보다는 도심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으며,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모든 직업 집단이 긍정적인 수준의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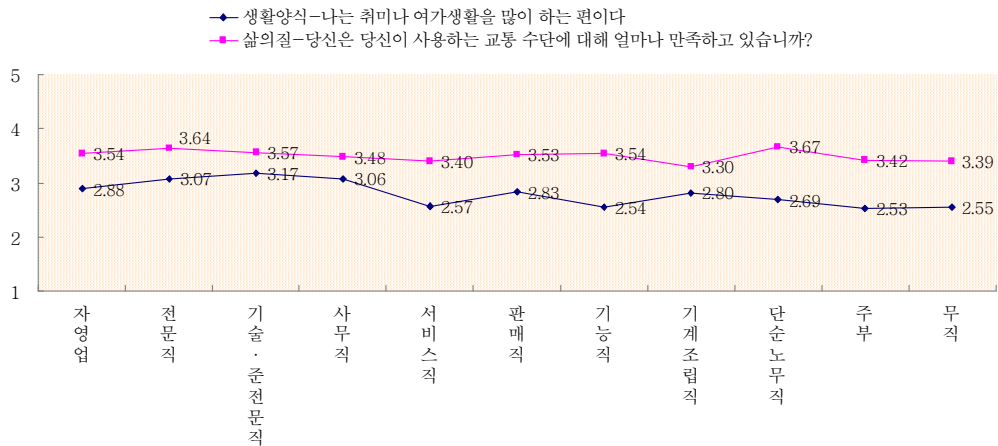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학력집단이 모두 긍정적인 수준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거주 지역에 대한 학력집단별 선호도는 흥미롭게도 학력이 가장 낮은 ‘중졸이하’(2.77)와 가장 높은 ‘대학원’(2.90) 이상의 집단이 동일하게 도심보다는 교외에 살기를 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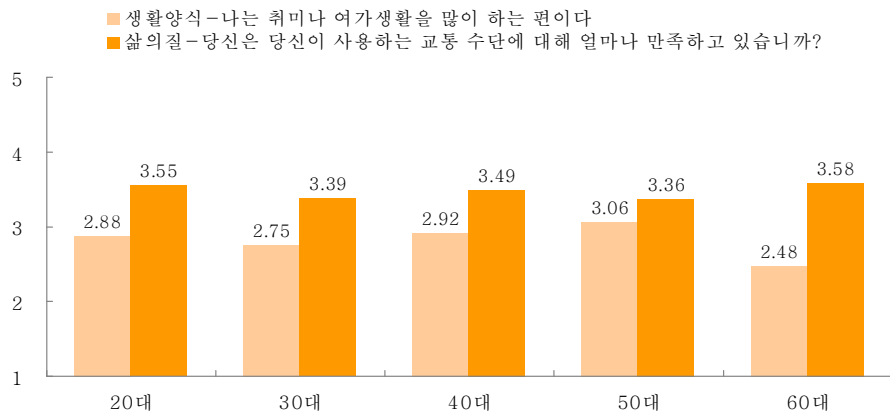


(4) 교통

직업집단별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무직’을 포함한 모든 직업집단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단순노무직’과 ‘전문직’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¹¹⁾



모든 연령집단이 전반적으로 교통수단의 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60대 이상’과 ‘20대’ 연령집단의 만족도가 높아 대전의 교통 시스템이 필요한 계층에게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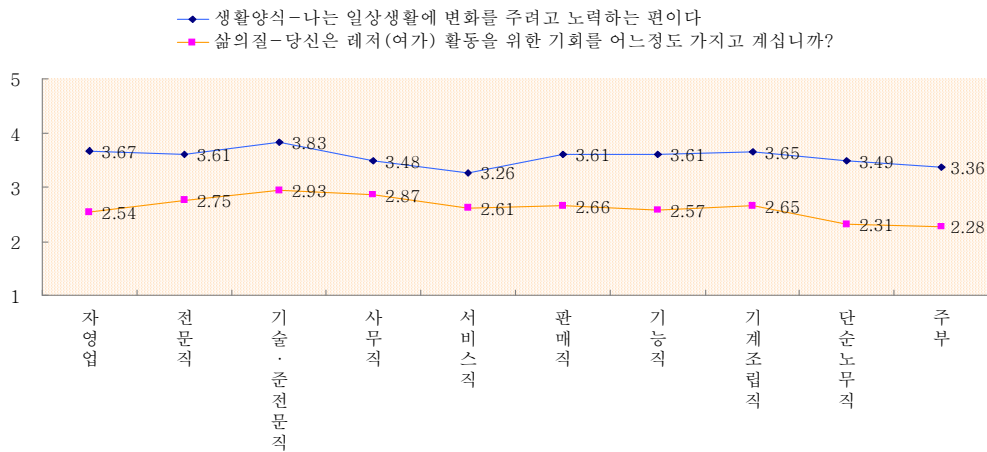


11) 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직업집단은 ‘기술·준전문직’, ‘사무직’, ‘전문직’ 등 3개 집단뿐이었으며, 그 외의 집단은 대체로 충분한 여가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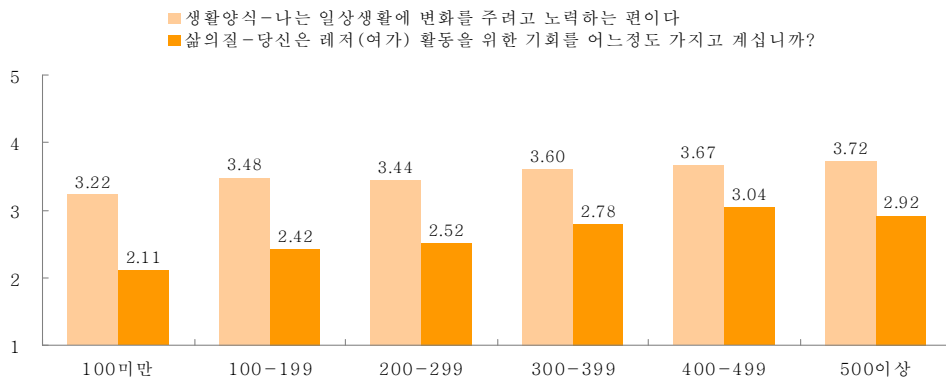
(5) 여가

모든 직업집단이 모두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준전문직’(3.83)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든 직업집단이 여가활동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주부’(2.28), ‘단순노무직’(2.31), ‘자영업’(2.54) 등의 직업집단이 가장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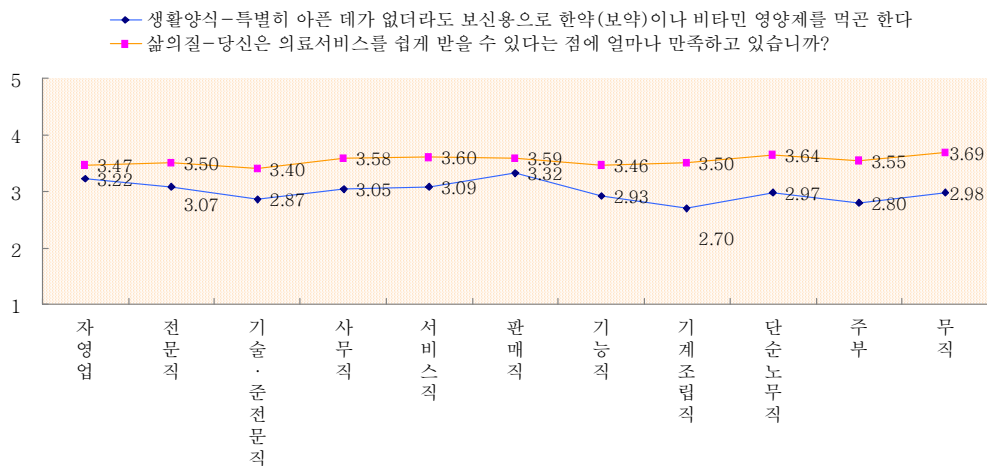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400-499만원 소득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집단이 여가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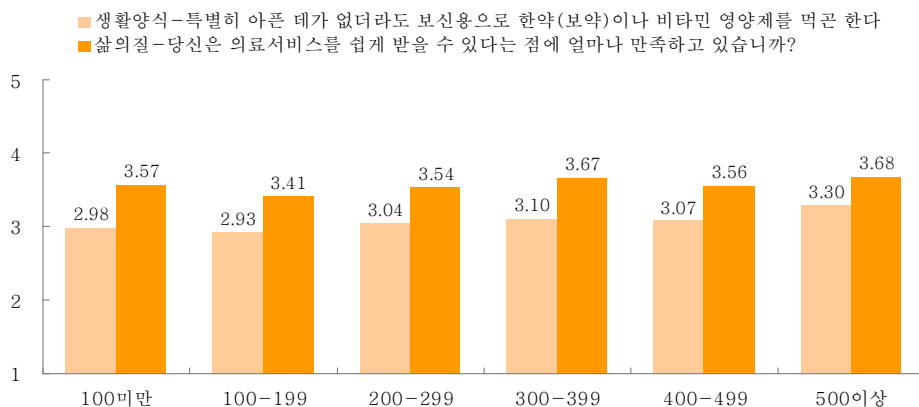


(6) 의료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직업집단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무직’(3.69), ‘단순노무직’(3.84) 등 취약집단의 만족도가 매우 가장 높음을 볼때 의료보험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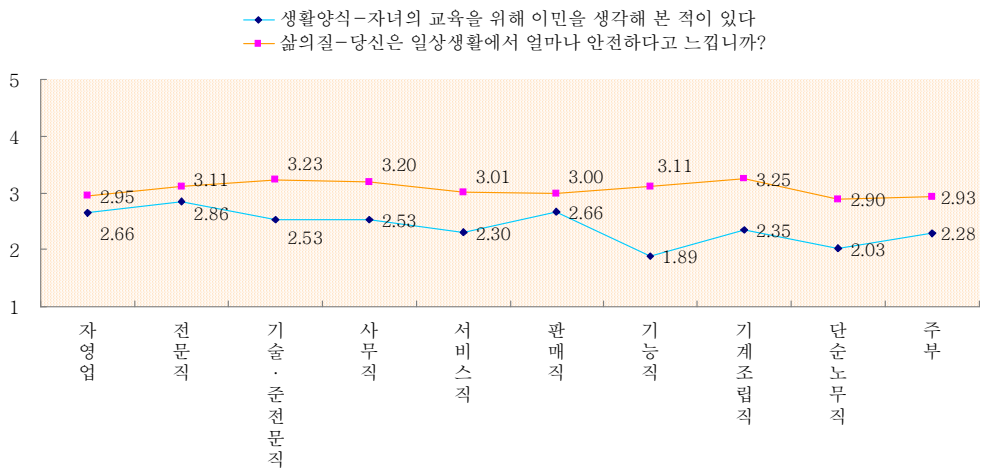


평상시 보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성향은 소득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약이나 영양제를 더 상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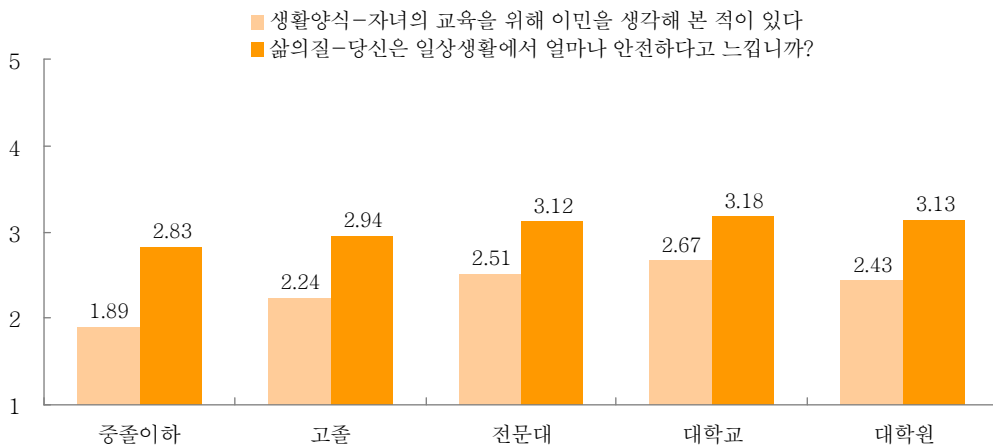


(7) 안전

안전한 삶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2.90), ‘주부’(2.93), ‘자영업’(2.95) 등을 제외한 모든 직업집단이 긍정적인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민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직업집단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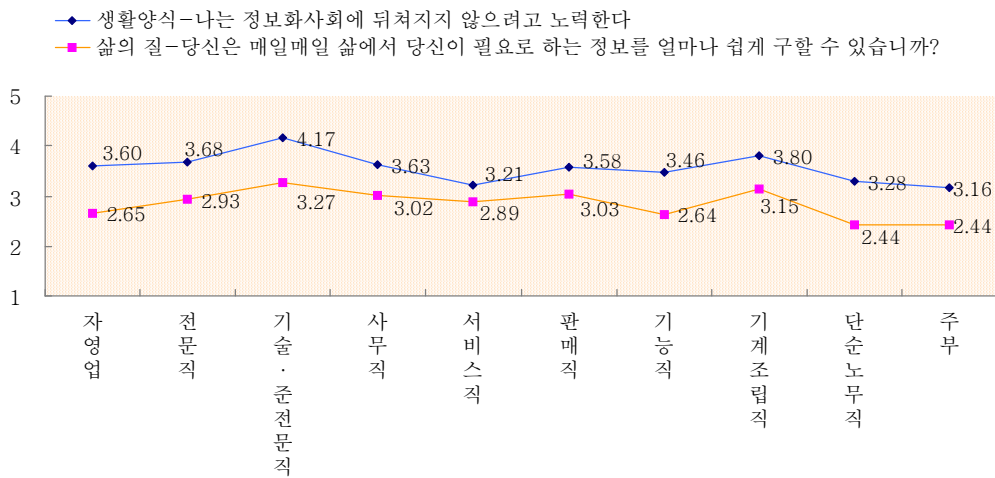
학력집단별로 보면 대체로 높은 학력집단이 낮은 학력집단에 비해서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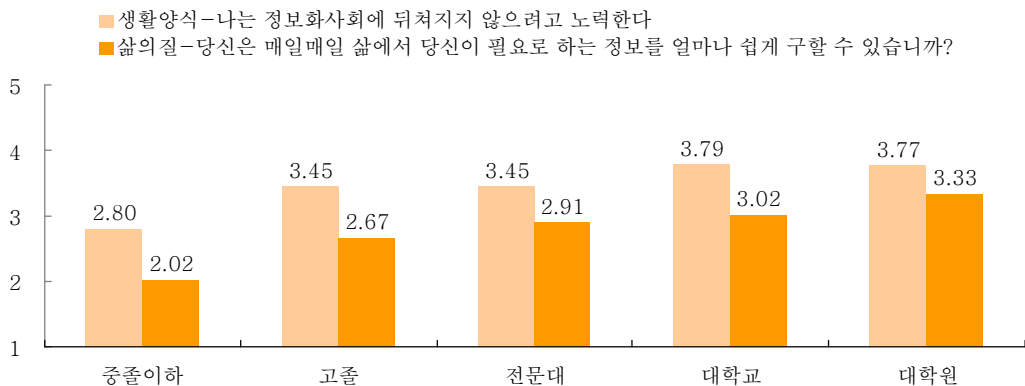
(8) 정보

모든 직업집단이 정보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준전문직’(4.17)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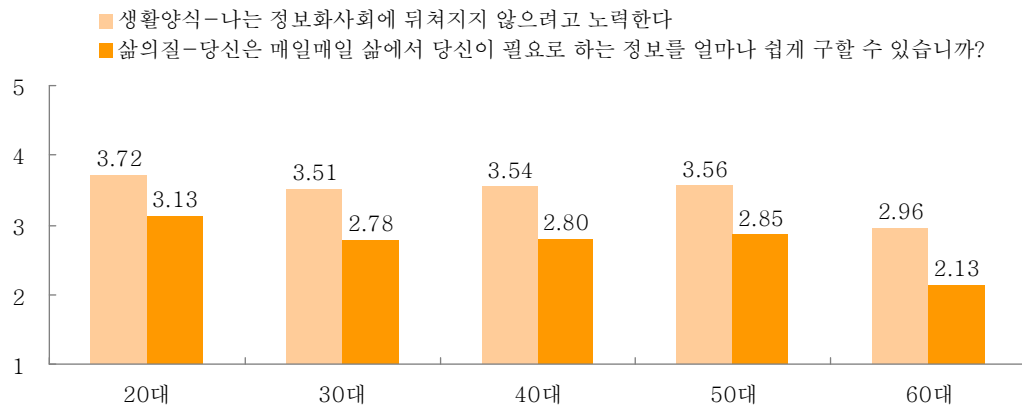
그에 반해서 ‘자영업’(2.65), ‘전문직’(2.93), ‘서비스직’(2.89), ‘기능직’(2.64), ‘단순노무직’(2.44), ‘주부’(2.44) 등의 많은 직업군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학력집단별 정보화 노력은 고학력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마찬가지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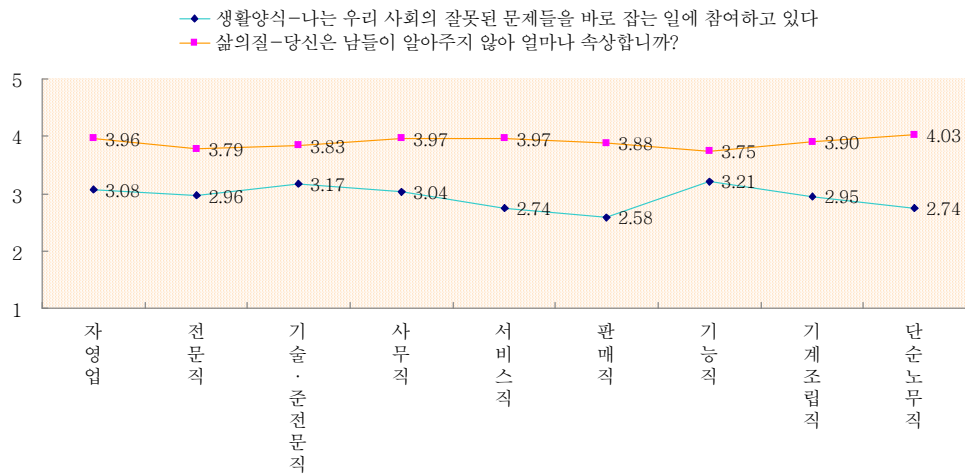
반면에 연령집단별로 보면 정보화의 노력과 접근성이 모두 부(否)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는 노력과 충족도에서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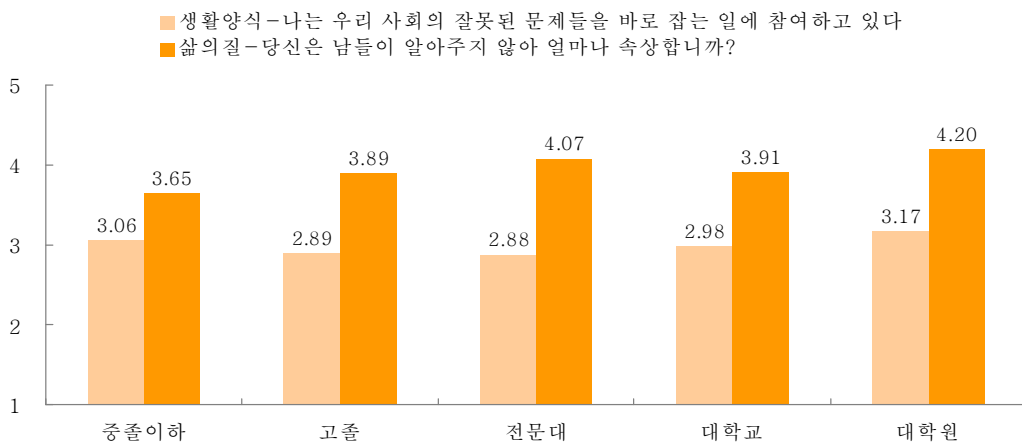
(9) 사회참여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업집단은 ‘기능직’(3.21), ‘기술·준전문직’(3.17), ‘자영업’(3.08), ‘사무직’(3.04)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으로는 ‘판매직’(2.58), ‘서비스직’(2.74), ‘단순노무직’(2.74) 순이었다.

사회참여의 직업집단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는 모든 직업집단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부정적일 정도로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성은 학력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는 약한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4. 정책 제언

1) 일상생활을 위한 정책

(1) 일상적 생활환경

○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

서구 사회와 달리 사람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며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住)생활 양식은 점차 온돌보다는 침대를 선호하고, 교외보다는 도시에서 생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점차 시민의 생활양식이 도시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주택의 구조가 방보다는 거실이 넓은 쪽을 선택하며,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주택 정책은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구성에 신경을 쓰면서 추진하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개인화·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

부모를 모시는 것이 꼭 장남이 아니어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부모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제 노부모를 양로원에 모시는 것도 자식의 도리로서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하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그들의 노후생활을 가족 차원의 문제로 제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떠안을 수 있도록 시설 및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안전한 먹거리’ 지원 정책

시민의 식(食)생활은 ‘먹거리’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육식보다는 채식을 좋아하고, 양식보다는 한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상품화된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크며, 전통적인 조리음식 문화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난다.

식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특히 먹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고려할 때 이는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 대상(테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식생활에 적합하고 안전한 식탁을 위한 지역의 먹거리 지원 정책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먼저, 지역 차원에서 안전한 식탁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 공급 및 유통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생산물 코드제를 통한 투명한 유통시스템의 구축과, 인근의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수급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농 상생의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민이 무엇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이다. 이는 바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공동체의 소통

○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환경 정책

환경은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이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

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꺼이 실천 또는 희생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 환경 관련 문제나 사안이 개인적인 차원에 놓이게 되면 그 행위자는 개별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처럼 아직 시민의 환경친화적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환경적 생활양식이 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환경보존을 순전히 개인적 실천에 의존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며, 어떤 개인적 또는 개별적 접근 방식보다는 행정 규제나 조례 제정 등과 같은 보편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력하다.

다음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 개개인의 생활양식이 환경친화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그러나 환경 친화적 생활양식은 어떤 단기적인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과정 속에서 체화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가진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회화 과정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형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결국, 이처럼 지역의 환경정책은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시민의 생활문화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행정적인 규제나 제도화를 통한 단기적인 처방과 다른 한편으로 시민의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형성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자라나는 신세대에 대한 환경 친화적 교육 및 사회화 과정이 강하게 요구된다.

○ 행복한 가족을 위한 정책

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이 점차 약해지고,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는데 꼭 남자가 연상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점차 여성에 대한 인식과 가부장적 문화가 바뀌면서 가

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출산, 보육 등 주로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약화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정의 행복은 아직도 남성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결혼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는 여전이 남아있으며,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아빠’는 아직도 가족 행복의 핵심적인 열쇠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가족 차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도 출산이나 보육의 문제와 더불어 ‘아빠’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가칭)나 혹은 ‘실업 가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가칭) 정책 등이 제안될 수 있다.

○ 전통적 가치를 담지한 참여적 유인 정책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는 추세는 일상적인 생활문화를 어떤 전통적 규범이나 도덕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 중심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능력만 된다면 사치스런 소비도 이제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는데 더욱 더 소극적이 되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가치를 두는 개인화 경향은 강화되는 데도 아직 관습과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적 성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점차 시민사회가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함께 동참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에 기초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녀’, ‘가족’, ‘교육’, ‘나눔’, ‘공동체’, ‘행복’, ‘효’ 등의 전통적인 가치는 여전히 응집력이 강하며, 따라서 미래 대전의 도시발전의 전략은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와 연계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만 한다.

2) 분야별 정책 전략

(1) 경제

시민의 노동역량의 질은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일자리 공급의 부정적인 수준으로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전이 고급인력의 수용을 위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2008년도에 대전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겨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발굴을 비롯하여 ‘1사 1인 더 채용하기’,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서 고용 촉진을 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노동력에 대한 긍정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기술·준전문직’(3.53), ‘사무직’(3.40), ‘전문직’(3.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준전문직’의 경우는 업종의 질(quality)은 높으나 공급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향후 다른 업종보다도 시급하게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분야로 보인다.

(2) 교육

교육 지표는 삶의 질과 뚜렷한 정(正)의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요소로서 크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매우 크다. 특히 정규 교과과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과외나 학원 같은 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 심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류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이 점차 약화되고 사교육이 강화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삶의 질 편차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점차 교육의 질보다는 입시의 경쟁으로 몰리는 교육 현장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전인 교육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파행적인 경쟁적 교육 시스템은 일찍부터 자라나는 세대의 정서를 왜곡시키고, 삶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자각하지 못하는 메마른 인성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너와 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익히지 못한 세대에게 행복한 삶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던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 이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무엇보다도 교육은 점점 더 일상의 삶의 질(quality)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삶의 다양성을 허용하고, 다양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지역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¹²⁾ 이를 위해 지자체는 입시를 위한 획일적인 인재가 아닌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학교, 시설,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는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주체적으로 학습해가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발굴·지원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술’, ‘문화’, ‘시민’, ‘환경’, ‘어린’,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사회적 주제와 집단이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둘째로, 도시 전체를 학습 공동체로 조성해야한다. 대전시도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교육의 문제를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학교와의 파트너십 강화’, ‘학교공간의 지역사회 중심 센터화’, ‘교육격차가 없는 대전 조성’, ‘학교급식 개선 지원’,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공익사업’, ‘찾아가는 생활과학 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이 선진적인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도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놓치기 쉬운 것

12) 이는 연령과 계층을 초월하여 나름의 역할이 주어지는 사회시스템과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

은 마을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유치원’, ‘노인정’, ‘취미동아리’ 등 다양한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생성되는 풀뿌리 교육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미시적인 생활공간의 학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주거와 공간

대체로 시민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이며, 주거환경의 질(quality)은 긍정적인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점차 개선되어 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거 환경을 지역별로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모든 지역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대덕구’(2.76)는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으며, ‘동구’(2.83)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6년부터 동구와 대덕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는 그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영세민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은 그 해당 지역마다 좀 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수용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지개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이 대체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거주지역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각 지역마다 특성과 요구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판암동의 영세민 거주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지만, 중리동이나 월평동은 주거환경 개선이 그리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고, 오히려 월평동의 경우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어린이 교육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처럼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데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으며,¹³⁾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핵심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13)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나 설명회가 필요하다. 예컨대,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의 경우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끌려가는 사업이 되고 말았는데, 만일 사전에 사업의 내용을 알았다면 좀 더 나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필요가 있다.

첫째, 거주 지역이나 장소의 개선을 위한 사업은 항상 해당 지역의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동구 판암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음에도 많은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주민 참여의 문제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자긍심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마을 성원간의 협동의 전통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처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결과보다는 과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친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은 자칫 그 긍정적인 성과까지도 희석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는 주거환경의 개선만이 아닌 주민의 공동체 회복이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3) 교통수단

점증하는 도시의 이동량에 대한 대응은 미래 도시 교통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미래 교통시스템은 단순히 도시 활동에 필요한 접근성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의 환경적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전의 교통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 집단별로 보면 ‘단순노무직’과 ‘무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업집단이 교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과 ‘20대’ 연령집단의 만족도가 높아 대체로 필요한 사람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대덕구의 교통 편이성이 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도시철도의 연결성을 강화 시키는 방안 등 향후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이성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4) 의료서비스

미래 지향적인 도시 경영은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선진 도시가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전의 의료서비스의 질(quality)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점차 더 개선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동구가 가장 양호하고, 다음으로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구의 의료서비스 편이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전부터 원도심에 소재하고 있던 대학병원 등 기존의 의료시설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집단별로 살펴보아도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직업군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직'(3.69), '단순노무직'(3.84) 등 취약집단의 만족도가 높음은 현행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어느정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소득집단별로 보아도 1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적은 소득집단까지 긍정적인 수준을 나타나고 있어¹⁴⁾, 현행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저소득 계층에도 일정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도시의 안전

대전시는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컨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전 구현', '생명약속 U-119 추진 가속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의 도시 안전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도시 안전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마련될 필

14) 평상시 보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성향은 소득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약이나 영양제를 상용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구’(3.23), ‘유성구’(3.08), ‘동구’(3.06) 등 3개 구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구’(2.98)와 ‘대덕구’(2.65)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덕구의 경우는 연차적으로 안전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6) U-City 만들기

앞으로 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많은 도시가 시민의 정보 활용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과학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월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시민의 연령집단별 정보화 역량을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의 정보접근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은 정보활용의 기회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집단별로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정보화 노력도 정(正)의 관계에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더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집단별로는 모든 직업군이 한결같이 정보화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준전문직’(4.17)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⁵⁾

그동안 대전광역시도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시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실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어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15) 그에 반해서 ‘자영업’(2.65), ‘전문직’(2.93), ‘서비스직’(2.89), ‘기능직’(2.64), ‘단순노무직’(2.44), ‘주부’(2.44) 등의 많은 직업군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2000: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삶의 질 지표설정 연구』
- 구동희 2004: 「도시탈출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리학회
- 김경호/ 장호중 2004: 「노인의 스포츠 참여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 김대희 2001: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
- 김영정 2000: 「정보화와 도시생활양식의 변모-신화와 현실」,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선기 2005: 『대전시민의 생활실태 및 라이프스타일 조사보고서』, 대전발전연구원
- 문태영 2003: 「직장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과 생활만족도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 손덕옥/ 박춘화 2002: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학회
- 유춘희 2002: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현대인의 영양문제」, 한국영양학회
- 윤병식 외 4인 1996: 『한국인의 삶의 질 :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명진 2002: 「정보기술 활용정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한국정보사회학회
- 이재기 외 2인 1998: 『삶의 질의 국제비교와 지역간 비교분석』, 집문당.
- 정선기 외 2인 2005: 『대전시민의 삶의 질 측정·조사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지표』

○ 외국문헌

- Beck, Ulrich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Main.
- Berger, Peter A./ Hradil, Stefan (Hrsg.) 1990: Lebenslagen, Lebensläufe, Lebensstile, in Sonderband 7, Soziale Welt, Göttingen.
- Bohn, Cornelia 1991: Habitus und Kontext, Opladen.
- Bourdieu, Pierre 1982: Die feinen Unterschiede - Kritik der gesellschaftlichen Urteilskraft, Frankfurt/Main.
- C. Parry, D., J. Shnew, K. 2004: The Constraining Impact of Infertility on Women's Leisure Lifestyle, in Leisure Sciences, 26: 295-308.
- Cassidy, K. etc. 2004: Association between lifestyle factors and mental health measure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wome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8: 940-947.
- Diewald, Martin 1990: Von Klassen und Schichten zu Lebensstilen - Ein neues Paradigma für die empirische Sozialforschung? Berlin.
- Gluchowski, Peter 1988: Freizeit und Lebensstile, Erkrath.
- Hörning, Karl H./ Michailow, Matthias 1990: Lebensstil als Vergesellschaftungsform. Zum Wandel von Sozialstruktur und sozialer Integration, in: Berger, Peter A./ Hradil, Stefan (Hrsg.): Sonderband 7, Soziale Welt, Göttingen, 501-521.
- Inglehart, Ronald 1995: Kultureller Umbruch - Wertwandel in der westlichen Welt, Frankfurt/Main.

- Parry, D. C./ Shinew, K. J. 2004: The Constraining Impact of Infertility on Women's Leisure Lifestyles, in *Leisure Sciences*, 26: 295-308.
- Thorkild Ærø 2006: Residential Choice from a Lifestyle Perspective, in *Housing, Theory and Society*, 23: 109-130.
- Hradil, Stefan 1992: Alte Begriffe und neue Strukturen - Die Milieu-, Subkultur- und Lebensstilforschung der 80er Jahre, in Hradil, Stefan (Hrsg.): *Zwischen Bewußtsein und Sein*, Opladen.
- Klocke, Andreas 1993: *Sozialer Wandel, Sozialstruktur und Lebensstil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 Krais, Beate 1989: Soziales Feld, Macht und kulturelle Praxis, in: Eder, Klaus (Hrsg.): *Klassenlage, Lebensstil und kulturelle Praxis*, Frankfurt/Main.
- Matsushita, T./ Matsushima, E. 2004: Quality of life and lifestyle among city dwellers participating in the medical programs, i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8: 642-650.
- Maycroft, N. 2004: Cultural consumption and the myth of life-style, in *Capital & Class*, 84: 61-75.
- Müller, Hans-Peter 1992: *Sozialstruktur und Lebensstile - Der neuere theoretische Diskurs über soziale Ungleichheit*, Frankfurt/Main
- Petrucci, Alessandra 2002: Quality of Life in Europe: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in the Netherlands, 60: 55-88.
- Rogers, P., Coaffee, J. 2005: Moral panics and urban renaissance: Policy, tactics and youth in public space, in *City*, 9(12).
- Rogerson, Robert J. 1998: Quality of Life and City Competitiveness, in the *Department of Geography*, 36:969-985

- Royuela u.a., Vicente 2003: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small areas over different periods of time, in the Netherlands, 64:51-74.
- Seik, Foo Tuan 2001: Quality of life in cities, in Great Britain, 18:1-2.
- Shin, Doh Chull 2003: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Comparative and Dynamic perspective, in Netherlands, 62,63:3-16.
- Spellerberg, Annette 1992: Freizeitverhalten – Werte – Orientierungen: empirische Analysen zu Elementen von Lebensstilen, Berlin.
- Zapf, Wolfgang u.a. 1987: Individualisierung und Sicherheit – Untersuchung zur Lebensqualitä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

I. 생활양식

※ 다음에 드리는 서술문에 대해 귀하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요.

1. 교육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과외나 학원수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에게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통문화 예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자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대전시정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등)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는 반드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시나 구 관련 소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시정이나 구정과 관련하여 내가 할 일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직장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돈을 투자한다면 안전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쪽에 투자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돈에 여유가 있다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3) 갑자기 경제적 능력이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생의 성공여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대전에는 가능성이 있는 직장이나 직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또는 나의 가족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보·광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정보화사회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돈을 들이는 것은 아깝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신문에 끼워오는 광고 전단지 내용을 읽어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광고에서 얻은 정보는 물건 살 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광고를 하는 제품은 광고를 안 하는 제품보다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광고에서 자주 본 제품을 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건강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특별히 아픈 데가 없더라도 보신용으로 한약(보약)이나 비타민, 영양제를 먹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건강에 관한 기사나 TV 프로그램은 꼭 본다	①	②	③	④	⑤
(3)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이나 체중조절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환경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환경보호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 개인적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환경에 나쁜 줄 알면서도 편리해서 쓰는 제품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좋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귀찮더라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부모는 가능한 한 장남이 모시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시설만 좋다면 부모를 양로원에 모셔도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능력만 된다면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능력만 된다면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들은 꼭 낳아야(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좋지 않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성·결혼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하는 능력만 놓고 보면 남녀간 차이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결혼 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여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거지역에는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취미나 여가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말에는 TV를 보면서 집에서 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말에는 운동이나 등산, 레저 등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10. 의생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잘 입어야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 패션과 유행은 곧바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의류는 유명브랜드 제품이 역시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비싼 옷 한 벌보다싼 옷 여러 벌 입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식생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먹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맛이 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육식보다 채식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스턴트 식품도 영양가는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5) 외식을 할 때 한식보다는 양식으로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한 끼 식사는 꼭 밥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주거생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방이 좀 좁더라도 거실이 넓은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온돌보다 침대가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복잡하더라도 교외보다는 도심에서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힘들어도 내 집은 꼭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인생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관습이나 전통은 현대 사회를 사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능력만 된다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오래 사는 것보다 활기차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 잡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삶의 질

※ 이 질문지는 당신이 최근 2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번호	문항	매우 나쁨	나쁨	나쁘지도 좋지도 않음	좋음	매우 좋음
		0%	25%	50%	75%	100%
1(G1)	당신은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만족	매우 만족
		0%	25%	50%	75%	100%
2(G4)	당신은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당신이 지난 2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0%	25%	50%	75%	100%
3(F1.4)	당신은 (신체적)통증으로 인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방해받는다고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4(F11.3)	당신은 일상생활을 잘 하기 위해 얼마나 치료가 필요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5(F4.1)	당신은 인생을 얼마나 즐기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F24.2)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7(F5.3)	당신은 얼마나 잘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8(F16.1)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9(F22.1)	당신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다음 문제들은 지난 2주간(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이 어떤 것들을 “얼마나 전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혹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전적으 로 그렇다
		0%	25%	50%	75%	100%
10(F2.1)	당신은 일상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1(F7.1)	당신의 신체적 외모에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12(F18.1)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3(F20.1)	당신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4(F21.1)	당신은 레저(여가)활동을 위한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지난 2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만족했고, 행복했고, 좋았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전적으 로 그렇다
		0%	25%	50%	75%	100%
15(F12.4)	당신은 당신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매우 불 만족	불만족	만족하지 도 불만족 하지도 않 음	만족	매우 만 족
		0%	25%	50%	75%	100%
16(F3.3)	당신은 당신의 수면(잘 자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7(F12.4)	당신은 일상생활의 활동을 수행하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8(F6.3)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9(F13.3)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대인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0(F15.3)	당신은 당신의 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1(F14.4)	당신은 당신의 친구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2(F17.3)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3(F19.3)	당신은 의뢰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4(F23.3)	당신은 당신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5(F9.1)	당신은 얼마나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의 도움, 혹은 안정상 위협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거나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드물게 그렇다	제법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0%	25%	50%	75%	100%
26(F8.1)	당신은 침울한 기분, 절망, 불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당신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0%	25%	50%	75%	100%
27(F26.1)	당신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8(F26.6)	당신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얼마나 속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임/어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 ② 자영업자(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 ③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 ④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 ⑤ 기술공 및 준전문가(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등)
- ⑥ 사무종사자(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 ⑦ 서비스종사자(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 등)
- ⑧ 판매종사자(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 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업 종사자 등)
-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 ⑪ 단순노무종사자(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직업군인 ⑮ 무직 ⑯ 기타(_____)

DQ2.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재학포함)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재) ④ 대학교(재) ⑤ 대학원(재)

DQ3. ○○님택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느 정도 되십니까?(보너스 포함)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기본연구보고서 2008-14

대전시민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제고 방안
Change of Lifestyle and Improvement in QOL of Citizen of Daejeon

발행인 대전발전연구원장 육동일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우)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 1길 39
전화: 042-530-3516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http://www.djd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